



서울大同窓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3년 8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05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 眞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파동 18-2 ☎ 702-2233 FAX: 703-0755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96년간의 수원캠퍼스 생활을 마감하고 관악으로 이전했다. 사진은 관악캠퍼스 제2동충장에 위치한 농생대 본관 건물.

(커버스토리 3면)

농생대 관악캠퍼스에 보금자리 새 출발!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수원에서의 찬란한 업적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의 꿈을 안고 관악에 등지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대학을 거쳐 나간 인재들만 해도 학사 2만1천3백17명, 석사 3천8백52명, 박사 1천2백63명 등 모두 2만6천4백32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캠퍼스가 관악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도 들 것이다. 학창시절의 낭만이 그 어느 단과대학보다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푸르름이 가득한 드넓은 캠퍼스, 아름다운 전원풍경, 남달리 임팩트 도인한 기숙사 생활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졸업생의 뇌리 속에 그려져 있을 것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1904년 농상공학교로 서울에서 개교되었다가 1906년 농상공학교의 농과가 농림학교로

되립, 그 이듬해인 1907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대를 열었다. 그 후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1946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통합되면서 오늘의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이르렀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기여한 업적은 지대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농생대, 새로운 도약의 꿈을 안고 관악에...

국민들이 방정 먹을 수 있는 식생활의 필요로움을 주도한 것은 어느 학문보다도 탁월한 업적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도 농생대는 농업을 비롯한 생활산업의 원천기

를 개발하기 위해 생명과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농생대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에 펼쳐져 있는 관악에 관악캠퍼스의 훌륭한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 연구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인근 기초학문이나 첨단과학분야 등과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져 캠퍼스의 연구분위기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생명과학의 연구 추세가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종합과학으로 변모하고 있어 다른 인접 학문과의 협력도 활기를 띠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명과학 중심의 생물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유망 성장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농생대가 관악 캠퍼스에 인류함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의 중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勵)

만든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育林, 李炯均, 南仲九, 金錫錫,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瓏, 李元龍, 安國正, 사람 李慶衡, 金錫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鄭振鎬 광고부장 金千鶴

지난 봄 「대학신문」에 「저어, 저기요」라는, 다소 이색적인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서울대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辭成道교수가 쓴 글의 요지는 이러했다.

「도서관 직원의 친절을 기대한다면 먼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분명히 연장자인 사서를 「선생님, 같은 호침이 아닌 「저어, 저기요」 식으로 부르면서 친절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저어, 저기요」라는 호칭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존중한 생각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누가 친절하게 대하겠는가」.

許교수의 지적은 따름했다. 「학생들은 직원의 경우 친절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직원 예전 일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친절해야 할 의무는 없다. 친절은 어디까지나 부가서비스일 뿐이다. 학생들은 상대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이를 권리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는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 친절한 서비스를 받지는 않던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책임이라며, 상대의 친절을 원한다면 설사 권리라 해도 오만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조언했다. 「지식의 본질은 실천」이라는 말과 함께,

남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왜대 평가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서울대



드림나무광장

친절은 부가서비스



朴 善 延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생(졸업생)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많은 서울대생들이 주위의 부러운 눈길과 은연 중 주저하는 「대접」에 익숙해진 나머지, 누군가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 싶으면 못 견뎌 하기 일쑤인 것 같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사서를 「저어, 저기요」로 부르면서 사서의 불친절을 성토하는 것도 그 같은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교문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서울대 출신에게도 예의 없이 냉엄하고 살벌한 싸움터가 된다. 게다가 서울대 출신엔 예초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학창시절 내내 받았던 특별대접이 사라진 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남보다 나은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고 심지어 풀이 죽는 건 스스로를 「왕따」로 만드는 자를 길에 다름 아니다.

실제 서울대 출신의 경우 직장에서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그 결과 서울대 졸업생을 「심정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취업률은 떨어지고, 「서울대 폐지론」 또한 자주 확산된다. 일부의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무시하기엔 사태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친절이 예의를 갖춘 사람이 얻는 부가서비스인 것 처럼, 사회적인 선망과 대접 역시 기대와 소망을 다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로열티이지 한때의 시험 성적으로 영구히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문 논설위원)

동문칼럼

동북아시아의 주역이 되자

이제 바이흐르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시아가 활황 열고 있다.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21세기는 태평양 시대」임을 예언하면서 문명의 西進說을 주장한 바 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도 21세기의 메가트렌드로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2001년 세계총생산(GDP)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5%. 세계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1960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다가오는 동북아시아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물론, 금융, IT의 중심지로 만드는 「동북아경제중심」 플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도전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개조 내지는 정신혁명 운동이자 경제 및 사회운원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가장 가까운 60년대 이후, 몇개는 수 천년 이어져 내려온 우리 사회의 낡은 인습과 관행, 의식, 제도를 바꿔 뉴밀레니엄에 대비하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도약하기까지 5년 내외가 소요됐지만, 우리는 지난 1995년 이래 국민소득 1만불에서 해매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키워드는 개방, 경쟁, 자유화이다. 동북아경제중심이 되려면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을 맺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요청된다. 아울러 우리의 후진적인 노사관계와 불필요한 규제 등 제도를 기업하기에 편리하도록 개혁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자본과 기술, 선진경영기법이 유입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외자유치와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을 통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인이 찾아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들과의 사소함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들이 영어 등 외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제도, 의식,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야 한다.

둘째로, 우리 인재들이 한국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무뎌진 개구리 식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세계무대에 나가 담당할 싸우겠다는 진취적인 기상을 갖도록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세계무대에 나가서 담당할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로, 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모으는 화의 기풍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에게 동북아시아의 도래라는 天降과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는 地利는 갖추어 있고 人和가 부족하다.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진 전력을 1백% 발휘해도 세계와 경쟁이 힘들어 한데 동서, 남북, 남녀, 세대로 갈려서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수 천년간 지속된 숙명과도 같은 邊方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세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의사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玄 許 錫

(74년 南大卒)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관악에서 飛上하는 농생대를 바라며...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캠퍼스 종합화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수원캠퍼스 생활을 마감하고 관악으로의 이전을 시작했다. 현재 농생대 본관은 관악캠퍼스 제2운동장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건평 1만4천5백평 규모로 준공됐으며, 수원캠퍼스의 행정본관, 농기정관, 농촌사회교육관, 농업개발연구소 및 농장, 목장, 수목원 등의 현장교육연구시설은 그대로 수원에 남겨 된다. 앞으로 수원캠퍼스를 잘 보존하고 남아있는 현장교육연구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농생대의 옛 건물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모교 계획과 동창회의 감회를 들어보았다.

첨단 기술분야 창출·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기대

柳寬熙(67년 農大卒) 모교 생물자원과학부 교수·전임 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올해 8월 대한민국 농상공부 농림학교로 1906년에 서울에서 설립되어 1907년 수원시 서문동으로 옮겨온 지 96년만에 서울로 되돌아가게 된다.

캠퍼스 이전에 대한 논의는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1986년부터 시작됐으며, 1987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1987~2001)에 농학캠퍼스를 관악캠퍼스 인접지역으로 이전하여 종합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부지 결정 및 건축물의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이전사업은 상당 기간 지연되어 2000년 2월 24일 비로소 본관동 기

공사를 거행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이사를 시작하게 됐다. 우리 대학의 본관동 건물은 관악캠퍼스에서 연건평 1만4천5백평으로 가장 크고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로 평가되고 있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의 이전 이유가 수원 전투비행장의 비행기 소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학문분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분야의 학문을 창출하고, 낙후된 교육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우리 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에도 농장, 목장, 수목원 등 현장교육연구시설은 그대로 수원에 남겨 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가특별화제에 의해 매각하게 되어 있는 수원캠퍼스 교지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농학캠퍼스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현장교육연구시설을 개선하며 교수와 학생들의 접근과 활용을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대학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모두 캠퍼스 이전이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재언한다.

1백년 상록의 수원캠퍼스 보전에 모든 역량 모아야

尹勳煥(54년 農大卒) 농업생명과학대학장회 회장

1906년 창설되고 수원에 자리잡은 지 어언 1백년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농생대는 금년 8월 추억과 향수가 어려있는 수원캠퍼스를 떠나 관악캠퍼스로 새로운 동지를 뜬다. 학사 2만1천3백17명, 석사 3천8백52명, 박사 1천2백63명 등 총 2만6천4백32명의 인재를 배출해온 농생대는 독립운동, 농촌계몽과 민주화의 선봉은 물론, 쌀 자급, 산림녹화 등 나라 발전에 이바지해왔고, 지금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향상 전환기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왔던 진취적인 상록인이기에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또한 새로운 비상

앞으로 농생대는 안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생명과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동문들의 돈독하고 폭넓은 지원을 기대하면서, 특히 다음 몇 가지를 서둘러 동문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한다.

첫째, 「세계 속의 서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파괴된 관악캠퍼스 잔여지는 너무 크다. 수원캠퍼스 보전에 동문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불과 9백여원에도 미치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수원캠퍼스 일부를 매각·교환할 경우, 농장, 목장 등의 유지는 물론 서울대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몇 개의 캠퍼스를 유지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예산으로 어렵단 뜻

있는 동문들이 「수원캠퍼스 한 편씩」이라도 정성을 보았으면 한다.

둘째,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한 식량의 문제는 국가 기본 기능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30%에도 못 미치는바로 인식하여 농학 연구 교육의 강화, 특히 대학 농장, 목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현장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셋째, 어려운 보릿고개에서 주곡인 쌀 자급의 녹색혁명과 채소와 연중 공급을 가능케 한 백색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우리 후손들을 위한 환경과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수목원, 연습림 등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꾸준한 증가해야 할 것이다.

고 별 시

백년의 서든별을 뒤돌아보며

李典九

일본어를 배워가며 일본어를 불러대며 보통학교 중학교를 어렵사리 졸업하고 땅국의 울분 머금으며 조국해방 기원하며 그래도 배움만을 중단하지 말라고 자성을 함께 갖춘 농사꾼이 돼 보라고 내 부모님 눈발 팔고 소파아 보내주신 대한제국 최고학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연습림의 소나무엔 젊음의 기상 뿜어있고 갈대밭 사이 물오르래 마름을 헤치며 놀던 그림 같은西湖에는 꿈과 낭만이 있었다네 湖水의 저쪽 편에 달리는 철마 바라보며 늙으신 부모 생각에 눈물도 글썽였네 해방의 기쁨 맞아 온 가족과 온 민족이 열광 하고 환호하던 그 이듬해 어느 봄날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태어났네 무종장난 국토에도 어김없이 흐른 세월 참혹스런 민족상잔 5년후에 터졌으니 배움의 최고 학부 軍부대로 둔갑했네 젣트 엔진 폭격기의 짙은스런 소음 속에 교수님의 땅강도도 쉬쉬하며 들었었지, 저건너 八達山에 수원성 성벽 밑에 진달래 피면 그 봄날에 사랑을 속삭이고 지루할 감동만 초여름날 사록 하늘 아스라한 활보리에 저녁노을 질 무렵엔 상록사 기슭사를 삼가서 빠져나와 딸기밭 원두막에 사랑을 꽃피웠지. 수일 여전 뿜 갈목 대포전에 우정 섞어 국가를 염려하며 미래를 토론했네! 술상을 탕탕치며 울분을 보로했지. 민주주의의 수호하며 독재를 규탄하며 4·19 기치 높이 들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부르른 발 절목대며 도로로 행진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고함고함 질렀다네 5·16 이후 군사정권 소용들이 정국에서 이심칠년 젊은 청춘 목욕히 불사르고 새마을운동 기치 들고 조국재건에 몸바쳤네 農者は 尖端之大本이라 농업생명과학대학 유전자와 복제기술 우리 물이 아니겠소 문인 정처 15년간 八旬九旬을 넘긴 세월 고색리 앞뜰 넓은 들의 향기로운 흙냄새는 아파도 숲속에서 매연에 파묻혀도 어머니의 땃내음처럼 코끝에서 떠나지 않네 백년 세월 접으면서 부모님 품을 떠나듯이 눈물을 머금은 채 「서든별」을 뒤돌아 보니 한 많은 91세월 동안 못다 이룬 그 원한들 자 - 이제 머리 반백 들어 부쩍 하늘 올려보세 다가오는 또 한백년은 어디에서 불태울까, 「관악」의 부시들로 동광로에 불을 지펴 「백두」 권지의 물을 퍼서 첫물을 식히리라.

※李典九(64년 農大卒) 동문은 뉴욕지부 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뉴욕골프센터 그늘 회장, 미주한인상공회소 이사장, 農동부문인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백년을 이어온 수원캠퍼스



행정본관



종합관



대형강의동



상록회관

강남순환도로 건설 절대 반대

鄭雲燦총장, 관악언론인회 간담

대학환경 도의시한 발상이 문제



지난 7월 21일 신문에 「미당」에서 모교 鄭雲燦총장의 초청으로 「관악언론인회」 임원 오찬 모임이 열렸다.

鄭雲燦총장은 초청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모교는 열린 대학을 지향하며 진정한 지식의 전달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며 「동문 언론인들이 이를 애정 어린 관심의 눈길로 지켜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최근 鄭雲燦총장께서 전 구성원이 참여

하는 민주적 개혁을 통해 모교를 세계적 수준의 종합대학으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시고, 이러한 노력으로 발전적 기틀이 잡혀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참으로 반갑다」며 「鄭雲燦총장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모교 지원이라는 큰 뜻을 갖고 모인 관악언론인회 동문들께서 모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악언론인회 安秉勳(조선일보 부사장)회장은 「그동안 모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세계 속의 대학으로 융비하려는 모교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고」고 약속했다.

鄭雲燦총장은 지역균형 선발전제에 대해 「창의성 있는 지식 창출을 위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라며 「결코 학력지향만을 초라하지 않으며 모교에 다양성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鄭雲燦총장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 「모교 장기발전계획의 중심지인 후문 부근을 지나기 때문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동문과 비동문을 망라한 사내 각계 각층의 지성인에게 적극적인 홍보, 국회 청원, 서울시와 관악구와의 지속적인 협상 및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孫一樹(한성일보 회장), 許 璽우총장, 모교 柳煥培기획실장, 관악언론인회 南仲九(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부회장, 安福正(SBS 편성본부장)감사, 金仁才(KBS 이사)간사장, 兪月煥(세게일보 주필), 李孝衡(대한매일이사), 姜善錫(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 鄭世哲(대일신문 편집국장), 李元吉(KBS 편성본부장)특별지휘위원, 朴勝俊(조선일보 전문기자)이사가 참석했다.

서평문에 대하여 추가적인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모교는 이 문제를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주민, 환경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처위원회(공동위원장 鄭明熙)」를 구성하고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관련 현 계획노선 전면 재검토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

2003년 5월 23일에는 RTV 시민방송 주관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참여 하에 강남순환도로건설 반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로건설과 구간별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5월 29일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전 사업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음, 지하수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공동대책위원회는 약 30여 환경·주민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도로건설위원회들 중심으로 총동조회, 언론인연회 등에서 도로건설의 문제점과 모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건설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해내 구성원은 물론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요구된다.

강남순환도로, 무엇이 문제인가?

鄭明熙 모교 부총장·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반대 공동위원장

모교의 각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순환도로)는 교육, 주거, 자연환경은 물론 교통과 안전, 예산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먼저 교통측면에서 보면 현재 노선은 기존의 노선(오류IC~양재IC)을 V자형(양재IC~하인IC~수서IC)으로 장거리 우회(14km)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예산의 증대(8천1백10억원~2조6백억원)와 강남~강서구간의 직결체계 구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불균형을 강남도심으로 유입시켜 이 지역에 엄청난 교통부하를 가중할 것이다. 특히 그 입구가 되는 모교 정문 앞의 관악IC, 사당IC 등의 혼잡은 지역 교통과 연결망이 보고사에서 예측한 2017년의 예측교통량을 이미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환경적 측면에서는 관악IC 진입로가 정문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는 「학교경계선 2백m 이내에는 학교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며, 1996년 서울시 조망가도로 선정된 신림로의 흉물이 될 것이다. 결국 소음 및 대기오염 등으로 교육환경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교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관악산의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소쩍새 등의 번식에 큰 장애가 되고, 서초터널 지점의 보호대상인 신갈나무 및 굴참나무군락을 파괴하게 되며, 1급수 종인 버들떡이 살 수 있을 정도

로 위악한 안양천의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안전측면에서 총 길이 10.3km의 지하 산악터널 중 관악터널(4천5백44m)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홍지문터널(1천8백m)의 2.5배, 신림터널(3천1백14m)의 1.4배, 서초터널(2천6백20m)의 1.7배에 달해 사고 발생시 대형질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상탈출구, 주변소음 등 안전기준도 외국의 터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강남순환도로는 당초 예상했던 교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부문에서 큰 피해를 초래할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도로이다. 이런 도로의 건설에 청계천복원사업 예산(3천6백억원)의 여섯 배에 해당하는 2조6백억원(안양천도로를 지하화할 경우 약 2조8천6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또 동서구간(수서~하인IC)과 남북구간(하인IC~양재터널)을 각각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부의 철도건설에도 불구하고 동서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데도 이 구간을 먼저 착공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민간사업자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의 10분의 1로 분담을 복개도로 및 남북순환도로 등을 개선하고 일부구간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서울시에서 건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문제가 많은 강남순환도로 건설을 고지하되 시민의 목소리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개월만에 서울대 앞으로 변경

모교 의견 묻지 않고 계획 확정

柳煥培 모교 기획실장



모교 정문 앞 관악IC 조망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순환도로)는 1994년부터 논의되어 당시 오류IC~양재IC(20.5km)가 최적으로 검토됐다. 그런데 1999년 3월 갑자기 서울시 도로와 공무원과 용역사 3명의 검토회의 이후 3개월만에 전혀 다른 V자형의 장거리 우회노선, 즉 양재동~하인IC~수서(34.8km)의 현재노선으로 변경됐다. 이 계획에 따라 모교 정문 앞에는 관악터널과 신림터널을 연결하는 일체고속도로와 관악IC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강남순환도로의 건설계획을 모교가 처음 알게 된 것은 2000년 6월 지오텍건설정보로부터 지반조사를 위한 모교의 부지사용 협조요청을 받으면서부터

다. 이에 철차산 문제, 교통 및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으나, 모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V자형의 장거리 우회노선으로

도시계획안이 2001년 5월에 공람됐다. 수 차례에 걸쳐 현 노선의 문제점과 모교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2002년 5월 모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서울특별시도시계획2002-198호)됐다.

모교는 2002년 5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모교 전 계교수 1천3백98명을 대상으로 강남순환도로건설 반대서명을 실시, 1천2백41명(89%)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 계획대로 강남순환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고지되어 충분히 전달된 상태」므로 교수

서울시 편법으로 환경평가해

주민합의 없는 도로 건설 안해

▲사업대 통창회 李東一 회장
「사업대 부설 중·중·고교가 서울시 각지에 산재해 있어 교사 양상 및 학교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 모교 부근교의 이런 계통을 마련해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데, 강남순환도로 건설로 이런 부지가 잠식되므로 절대 반대한다.

▲환경운동연합 楊一우 사무처장
「서울의 대기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 대기오염의 증가가 일 발발병을 낳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결국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녹지원을 늘리려는 서울시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환경과 공해연구회 申玉龍

사무국장: 「고가를 침범하고 청계천을 복원하는 마당에 안양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고가를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 金弘龍 토지정의운동본부 회장: 「구간을 나눠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편법이다. 이는 결국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저해 행위의 경제효과로서 기능 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건감합 도합합: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서울대가 대표권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합의 없는 공사에 2호인 남는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

법과대학 동창회 李相赫 회장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행정대학원 동창회 金光雄 회장

“인화·참여로 저변확대 기하겠다”

지난 5월 27일 정기총회에서 법과대학 동창회장에 선임된 李相赫(58년 法大卒·공증인)가 고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종문)를 만나 동창회 운영방안과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30여 년간 동창회에서 봉사한 하시는 데.

“1974년부터 회장 8명을 모시면서 사무처장, 상임부회장으로 안살림을 도맡아왔습니다. 다양한 경력의 회장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바를 동창회라는 틀을 통해 현실로 구현하는 일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죠. 釜山법학도서관 설립, 법학감의동·연구동·근대법학교육 1백주년 기념관 건립과 반대 1백주년 기념사업 실행 및 낙산학회 기금조성과 운영 등 제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는 생각에 새로운 감화를 느껴지는군요.”

—동창회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법대 재학 중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계속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여기고 이를 보답할 기회가 왔으면 했죠. 마침 1974년 당시 법대동창회 太善總회장께서 동창회 실무를 맡아 달라는 제의가 있어 인연을 맺었는데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동창회 운영 방안은.

“우선 인화와 참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만약에 법대 동문들은 모두 一鶴當千의 능력이거나 인재들이고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안주하다 보니 단결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잘 조화시켜 동창회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가기금을 확충해 더 많은 후배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약 18억원의 기금으로 38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데요. 연고정학금 등을 통해 50여 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특히 우리 5구부(1구와 3구부원 1천5백원)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스쿨’ 제도가



머지않아 도입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모고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대법학교육 1백년 역사를 담겨 된 「서울대 법대 1백년사」를 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0여 년 동안 재조자 교화 운동을 하고 계신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다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이고 소외라는 생각에 1974년 서울구치소에서 소년수, 영세 재소자, 사형수들을 교화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험에만 너무 열매이지 말고 호연지기의 자세로 자신이 받은 교육을 사회에 환원하고, ‘뽕뽕하고, 꽃뽕하고, 독뽕한’ 지성인으로서 사회의 보탬이 되는 인간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李동문은 1958년 고봉고시 사법과 및 행정과에 합격해 내부부 사무관, 전주·원주·제주지방법원 판사, 국제신문사 심판관, 통일일보·서울시 고분변화사,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서울구치소교화회의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회화에 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續)

“모교와 동문간 가교역할 할 터”

지난 5월 16일 행정대학원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된 金光雄(62년 法大卒·65년 行政院卒·모교 행정학과 교수)동문은 만나 동창회 운영방안과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회장을 맡은 후 동창회에 대한 느낌은.

“사람들은 대개 동창회를 친목모임 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동문으로서 모교에서 받은 도움을 되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과대학 가운데서도 특히 행정대학원이 그러한 기부 등이 잘 안되는 곳 중 하나예요. 앞으로는 동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만큼 모교를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잘 보이지 않고, 보인다 하더라도 구세대들만 참석한다는 점입니다. 이책은 장수의 재량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동창회 홈페이지 하나 없었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구세대들이 이메일 등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극복해나가고자요.”

—동창회 운영방안에 대해.

“동창회가 친목뿐만 아니라 모교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상했습니다. 교수님 가운데 원장, 부원장 등을 보내고 다수인의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를 방문해 모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문들로부터는 일하면서 느끼는 예로전, 모교에 대해 바라는 점 등을 들으면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재학생들도 정부의 인턴 내지 계약직 같은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안과 공직에 있는 동문들을 재교육



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생각이예요. 이러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현재에 있는 부처장급 동문들을 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시절, 위원회가 재발견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는데.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 젊은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늘 상 어렸었던 습관이 있어서 권위조직이 아닌 수평적인 형태의 조직으로 이루어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 사무실을 개방했고, 조달청 차장이나 국회의원장을 뽐낼 적엔 2순위 사람을 뽐는 등 적극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지요. 3년간 위원장을 맡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없어요. 새로운 조직이라 그런지 국외와 언론도 호의적이고, 청와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주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세우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었죠. 가장 큰 성과라면 정부를 개방하고, 인재 Pool을 만들어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金동문은 재하위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72년부터 모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으며, 모교 행정대학원장, 행정학회 회장, 사회정의연구센터모임 정치분과위원장, 초대 중앙(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表)

제주지부 동창회 姜景瑞 회장

“조직 강화와 체제 정비가 시급”



제 시작해야 할 것들이 기존 단체 회장들과의 유대 강화와 제대로 선임조치 되어 있지 않았던 단체 동창회장들을 선임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지부 산하 단체 동창회장과 긴밀한 협조와 유대가 없이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단체 동창회장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할 텐데 이에 대한 방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에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동창회 모임을 통해 이들이 얻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로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이끌어가는 문화가 동창회 내에 정착될 때만이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직을 강화하고 체제정비를 할 일이 시급하죠. 현재 갖추어진 동창회 명부부 통계 연락망을 확보한 것부터, 동창회 행사들 늘려 나간 것입니다.”

姜동문은 동국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제주일보 논설위원, 제주대 농과대학장·사회발전연구소장,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 제주농업발전본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농림부 산하 농협중앙회정책회의 위원 등을 맡고 있다. (亨)

지난 3월 29일 제주지부 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姜景瑞(64년 慶熙大·제주대 교수)동문이 선출됐다. 취임 후 5개월 정도 지난 지금 그동안의 동창회 활동 사항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동창회 소개를.

“전체 회원수가 3백명 정도 됩니다. 순수 학부 졸업생들만을 동창회원으로 인화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죠. 내부 규약의 문제인데, 앞으로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원 졸업자들도 회원으로 입회시키는 규약의 개정문제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제주대와 교유에 관련을 잡고 있는 회원들이 상당수입니다. 젊은 회원들이 현재 많이 부족하는데, 그것은

지역 특수성에 따라 인구의 유통성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따라 잠시 머물다가 새로 발령 받아 떠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산대회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떤지.

“현재 동창회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모임은 신임회원 환영회와 동산대회가 할 수 있죠. 이 가운데 동산대회는 제가 회장으로서 선출되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현재 반응이 좋아서 많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사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4회 개최를 목표로 회장님 계획이요.”

—동창회 운영상에 개선점이 있다면.

“제가 처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새로

Noblesse

Oblige

여민합동법률사무소 金善洙변호사

「민변」 창립멤버, 사무총장으로 동분서주

“노동변호사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싶어요”

「처음처럼」.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金善洙(36년 法大卒)동문의 사무실 한쪽 벽면에 걸려 있는 글귀이다.

처음에 기뻐한 마음을 오래도록 유지 하기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金동문은 이 간담명료하면서도, 핵심이 담긴 글귀를 매일같이 되뇌이며 '노동변호사'로서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왔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려한 입담과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최고의 수당을 받는 약간의 콧대 높은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金동문이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구성원이면서도 정작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는 아낌없는 법률적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통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립 서울보 은라운 金동문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파수원을 경험하고 세상을 관광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던 金동문이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도피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하여 그는 사회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배우는 법대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잠깐의 80년대 대학 시절, 당시 사회 정의의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던 노동자들을 보면서 金동문은 법조인, 특히 변호사도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 나아가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88년 발부터 정부가 파업현장에 경찰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대량 구속하는 강경탄압 정책을 쓰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사건에 뛰어들기 시작했어

요.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가 서울대병원 노조조합원 약 1천명 정도가 3년치의 시간과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법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 워낙 규모가 커서 하나의 사건을 다시 열 개의 사건으로 나눠 각 직원의 36개월 분의 임금을 표로 일일이 작성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4~5년이 걸렸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승소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지.

개인적으로는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산증인이신 현재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89년부터 파업을 주동하면서 그동안 네 번이나 구속을 받았는데, 네 번 모두 재가 앞에서 벌문을 맞았어요. 해고되고, 복직되고, 다시 수배되는 등 그는 자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그렇게 투쟁을 하더군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사건도 있었지만 결과가 반박돼 황당한 수박에 없었던 사건도 있었다.

「88년 천도파업이 있었을 때였어요. 1심에서 노동쟁의조정법이 유지, 직무유기죄가 부죄를 받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3심에서는 역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이 부죄, 직무유기죄가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 결국 복직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죠.

노사관계 문제, 파업 문제,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복잡하고도, 때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을 맡고 해결하면서 파업 삶의 보람이 있을까.

「인생은 끊임없는 과정의 연속이고,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

람이라도 많은 구성원이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金동문은 대답한다.

「파업을 했다고 무조건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파업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자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폭력이 있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언론에서는 무조건 결핵손실이 일 마이며, 시민들의 발을 밟기로 어떻게 한다는 등 무조건 나쁜 방향으로 매도하니 그럴 보시는 일반 국민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노동조합원들도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라든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동시에 국민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필요라」며 근로자들이 겪는 아픔과 그들의 입장을 알아챈다면, 너그라이 자라야 된다면 하는 마음을 이라고 덧붙인다.

1988년 민변이 창립되면서 金동문은 정립멤버로서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 노동계와 연대활동을 벌이면서 평화적이고, 이해와 협력으로 바꾸려던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와는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NGO로 발전시키나갈 예정이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할 때나 지금이나, 「처음처럼」 변한 게 없다고 말하는 金동문은 가정에서는 과연 어떨까. 「어느 아 빠처럼 집에 가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지만 그런 아빠예요. 큰 아이들은 공부하기 바빠서 주말만 되면 막내같이 된 듯 돌아서 만화영화들 보러 간다던가 놀이동산에 가서 데이트를 합니다. 밖에도 딸 옆에 누워서 서로 오손도손 얘기하다가 같이 잠들기도 하고요.

끝으로 金동문은 「제가 처음 접한 것이 노동사건이고, 이미 16년간 이 분야 에서 전문성도 다지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오늘도 처음 기뻐했던 마음처럼 그저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表)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과 민변 노동위 회원들과 함께.(뒷줄 우로부터 다섯 번째 金동문)



로키마운틴즈지부 동창회

로키마운틴즈 지부 동창회는 콜로라도 주의 와이오밍주, 뉴멕시코주에 걸쳐 있어 무산이 3개 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콜로라도주는 면적이 우리 나라와 약 2.7배, 인구는 10분의 1인 약 4백40만 명으로 과거 금, 은, 석탄, 우라늄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업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40여 개 이상의 스키장으로 스키의 천국이 됐고, 로키산맥 국립공원과 온천 등을 중심으로 관광의 중심지가 됐다. NORAD를 비롯한 미우주군 사령부와 공군사관학교, 위성 TV, 광섬유 등 통신망 사업의 본부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IT 산업 및 생명 공학 등 High

Tech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로키산맥 동쪽 기슭에 있는 콜로라도 주의 수도 덴버는 인구가 약 2백70만 명으로 한인은 약 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덴버는 미국 프로 스포츠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식축구 Broncos, 야구 Colorado Rockies, 아이스하키 Avalanche, 농구 Nuggets, 축구 Rapids 등이 있어 인근 여러 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 여름에도 로키산맥의 지평선을 따라 거의 1백80도로 벼랑을 치는 만년설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1백만명도 되지 않는 작은 주로, 북서쪽에 있는 Yellowstone 국립공원이 세계적인 간헐 온천으로 유명하다.

콜로라도주보다 약간 큰 뉴멕시코주는 인구가 약 2백만명으로, 로스앨라모스의 국립 핵연구소와 화이트 샌드의 유도탄 실험장에서 세계 최초의 핵폭탄을 개발해 실험한 곳이다.

로키마운틴즈지부 동창회는 약 70여 명의 동문이 있으며, 창립된 지 1년이 안된 신생 동창회이다. 지난 2002년 11월 17일 덴버 근교의 오토라에서 20여 명의 동문들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첫 발을 내딛었다. 이 때 회장단 선출을 통해 김자을 비롯해 감사에 柳光鎬(64년 文理大卒)동문, 총무에 金明鎭(75년 醫大卒)동문, 재무에 崔德相(78년 農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동문들은 그동안 숙원이었던 첫 동문회이자 창립총회를 지난 2003년 1월 26일, 덴버 근교의 그린우드 빌리지에서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24명의 동문과 가족 등 총 38명이 참여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당시 재미동창회 李龍浩회장이 방문하여 따뜻한 격려와 말솜과 함께 기념품을 증정하셨다.

동문들의 활동 영역은 사업, 의사, 약사, 교수, 연구원, 회계사, 목사, 대학원생 등 다양하다. 특히 Colorado Schools of Mines, Denver University, University of Colorado, Colorado State University, MetroState College

등 대학과 NREL(국립 대 제 에너지 연구소), NOAA(국립 해양 및 대기 연구소) 등에서 교수, 연구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와이오밍주의 대학과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라모 국립 핵연구소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에 약 50명의 동문이 있으며, 崔世植(47년 工大入·56년卒·前부산대 교수)동문이 최고참이다. 각 단과대 별로 공대는 安拱植(52년 工大卒)동문 등 20여 명, 의대 및 치대 林丹一(58년 醫大卒)동문 등 12명, 문리대 郭顯泰(49년 文理大入)동문 등 7명, 사대 鄭和濟(65년 師大卒)동문 등 4명, 약대 高吉山(73년 藥大卒)동문 등 3명, 농대 劉承台(64년 農大卒)동문 등 3명, 법대 朴慶秀(65년 法大卒)동문 등 2명이다.

앞으로 정기총회, आय회, 분기별 모임 등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모교 지원과 지역 사회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金奉熙 회장



2003년 창립총회.



불어교육과 동창회

모교 장학금 지원 등 따뜻한 교류 계속할 터

글 : 柳子孝(75년 師大卒·SBS 기획실장)회장



柳子孝 회장

사범대학에 불어교육과가 창설된 것은 1959년으로, 당시 전임교수로 부임한 朴玉莚(52년卒) 명예교수에 의해 학과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이후 鄭明煥(54년卒)교수와 李 恒(55년卒)교수가 부임하여 학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향후 학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쌓이게 됐습니다. 불어교육과는 올해도 창립 44주년이 됐으며, 지난 1999년 학과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 이후,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에서는 그동안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시행했으며, 학과 및 학부생들의 각종 행사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동문 직계가족의 회생시 동창회 조기 및 보조금을 전달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동문주소록 및 동문회지를 발간하여 신년하례식에서 배포하거나 연초에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동문들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동창회 홈페이지(french.snu.ac.kr)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으로는 한 해에 두 번씩 불어교육과 동창회 발전 및 회계보고를 위한 이사회모임을 가지며, 매년 1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여러 스승님 및 선후배들을 모시고 신년하례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불어교육과 동창회는 1974년부터 1대 회장에 徐榮河(65년卒)동문, 2대 故 鄭然豐(65년卒)동문, 3대 李亨植(72년卒)동문, 4대 申郭均(72년卒)동문, 5대 故 安正吉(74년卒)동문, 6대 崔錦穆(69년卒)동문, 7대 廉都均(65년卒)동문, 8·9대 李鏡台(65년卒)동문, 10대 鄭仁衡(69년卒)동문, 11대 劉秀烈(64년卒)동문이 회장을 맡으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새로 제12대 회장단이 위촉되어 필자가 현재 회장을 맡게 됐으며, 韓文熙(72년卒·상명대 교수),

卜成圭(74년卒·단국대 교수)·朴臣煥(78년卒·삼성전자 이사)·李 根(76년卒·프랑스지부 동문회장)부회장과 尹惠卿(77년卒·KBS라디오방송국)·趙恒德(78년卒·숙명여대 교수)·崔慶熙(85년卒·MBC PD)감사, 金裕根(84년卒·FALBRIDGE해운 대표)총무와 30여 명의 이사와 함께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9학번

이하 불어교육과 동문들은 관계, 재계, 언론 방 송 계, 학계 등 각양각색의 사회 전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줄

임성풍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불어교육과의 명성을 빛내고 있습니다.

불어교육과 동창회가 회원들간의 연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동문들간의 따뜻한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 활기차고 적극적인 동문사업 또한 계속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2003년 정기총회.

국제로타리 3650지구 張忠植총재



연합뉴스 張永鑒사장

차세대 주역 위해 소설 인세 전액 내놔

지난 7월 1일 4천여 명의 화일을 보유 하고 서울 강북지역을 총괄하는 국제로 타리 3650지구 총재에 張忠植(52년 師 大入·단국대, 세종문화회관 이사장)등 문이 취임했다.

—35세의 나이에 국내 최연소 총장으 로 대학을 운영하신 바 있는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 다른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퇴학 맞은 상당수 학생 의 단국대 입학에 도움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국대의 특색이라고 볼 수도 있 는데, 설립자이신 제 부친(淸平 張 靜軒 生)께서 투철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젊은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어 더 열심히 공 부시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총장과 이 사장의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으로서 지난 6 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술인들이 예술인다운 대접을 못 받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분 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경제적인 뒷받침 을 충분히 해주고, 세종문화회관을 세계 적인 시설에 버금가도록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로서 1년 임기동안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1975년 국제로타리 3650지구에 속해 있는 한성로타리에 입회한 이후 28년간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기아구방, 문맹퇴 치, 소아마비 박멸운동을 펼쳐왔습니다. 1987년에도 총재로 지명을 받았지만, 그 당시 남북체육회담을 책임지고 있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요즈음은 90여 개의 소속 클럽 가운데 학생회가 미진한 곳에 하루 걸러 한변씩 방문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타 리 장학금으로 공부한 분들을 찾아내서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민간차원의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그동안 보람 있었거나 아쉬웠던 점 이 있다면.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올림픽 유치에 우리 나라를 위해 꼭 필 요한 사업이라고 정부에 건의하여 받아 들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또 축구와 탁구 총목의 남북한 단일팀 선수 들이 합숙생활을 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직을 맡아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離散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했는데 여 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출간한 소설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인세 전액을 로타리 장학재단에 기부하셨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돈은 없지만, 과외활동으로 번 것이기에 차세대 주역들을 돕는데 아낌없는 지원 을 하고 싶습니다.』

張忠植은 1965년 대학배드민턴협회장 을 시작으로 대학육상·스키·축구·태권 도·농구·메니스연맹 회장과 대한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남북체육회담 수석대 표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장, 국제회계학회 회장, 백범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申東順(53년 師大入)여사와 장녀 張桂林(79년 高卒)씨를 비롯해 1남 3녀가 있다. (鑒)

“뉴스의 생명은 신속·정확·공정”

張永鑒(73년 文理大卒)등문이 지난 5 월 27일 연합뉴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 장으로 선출됐다. 張등문은 사장 공모제 를 통해 선출된 최초의 통신사 사장이라 는 기록을 남겼다. 제2차사위원회 가등 동으로 바뀐 시간을 보내고 있는 張등문 을 만나 국가기간통신사로 거듭나려는 연합뉴스의 경영전략 등에 대해 들어보 았다.

—소감은.

『통신기자로 28년을 지내며 우리 나라 를 대표하는 통신사 사장에게까지 올라섰 는데, 너무 과분한 직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2년6개월여 동안 “나라를 대 표하는 통신사가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섣목 하고 “뉴스통신진흥법” 추진심무위원장 으로 활동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언 론 및 국가 발전에 도모하고 국가기간 통신사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했 습니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뉴스통신진흥 법”은 연합뉴스에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더욱 엄격한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우리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차별성 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각으로 국내 소 식을 전하고, 역시 우리의 시각으로 세 계의 뉴스를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죠. 국내적으로는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뉴스의 신뢰성이 어느 때보 다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믿을 수 있는 연합뉴스”라는 신뢰를 심는 것이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과제입니다.』

—구체적인 해신 방안은.

『우선 해외특파원을 60명 정도로 증원 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최대한 18명 을 파견하고 있지만, AP, AFP는 물론



이고 중국 신화사통신 4백여 명, 일본 교도통신 1백여 명 등에 비추어 보면 부 고러운 수준입니다. 대만이나 베트남도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문뉴스를 보 감해 24시간 전송 체제로 바꿀 것이며, 민족의 동질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한 뉴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은행을 만들고, 정보 인프라 구 축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 다.』

—보원돼야 할 점은.

『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신문 구독료는 약 6배 상승한 반면 기사 전제료는 겨우 60% 오르는데 그쳤 습니다. 사실 대주주들이 통신사 성장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YTN 매각, 타 사의 주식 매각 등으로 자금을 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선 정부의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정부 의존을 점차 줄여 나가며 자체 수익모델 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張등문은 1975년 중앙통신 기자로 출 발해 연합뉴스 위성통신부장·정치부장·논설위원·수도권취재본부장·편집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외교통신부 정책자문 위원, 연합인포맥스 회장, 한국신문협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鑒)

국립암센터 朴在甲원장

학예의 동문

KBS 成世正아나운서

성곡학술문화상 수상

상금 3천만원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출연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점차 우리 나라 신문과 방송에서 출연 장면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여기에는 국립암센터 朴在甲(73년 金大卒·모교 의대 교수)원장의 숨은 노력이다.

지난 7월 14일 成世正은 유전성 중앙연구를 발전시켜 암질환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8회 성곡학술문화상을 받았다. 이날 받은 상금 3천만원을 지난 8월 8일 모교 발전기금으로 전액 기부했다. 이처럼 암질환 예방과 모교 사람을 실천하고 있는 그는 지금 담배와의 전쟁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의 금연 운동을 통해 최근 (주)농부는 임직원을 포함한 기명업주들이 금연선언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각 언론사를 찾아가 편집인들에게 흡연의 해악을 알려 지금은 거의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흡연 장면을 볼 수 없게 됐다.

그가 금연 운동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국립암센터 원장으로서의 소명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사망 원인으로 암이 1위인데, 모든 암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흡연을 막는 것은 국립암센터 원장으로서 당연한 이유.

成世正은 담배로 인한 암으로만 하루 50명씩 죽고 있는데 이는 나흘에 한번 꼴로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는 셈이라고 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때 이곳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국립암센터 원장의 입장에서는 전국이 다 재난 지역이라고.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담배를 이제껏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용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 사회에 금연문화를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연운동을 전개하면서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일도 생기는데, 대통령들과의

만남과 금연 얘기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에게 청와대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수석비서관들로 인해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죠. 또 비행기

안에서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盧武鉉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었습니니다. 마침 이 기회를 이용해 앞으로 큰일하시려면 담배를 끊으시라고 권유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한 동안 금연하셨는데, 최근 다시 피우신다는 얘기에 안타깝습니다』

국립암센터를 세계적인 의료센터로 성장시켜온 成世正은 최신 장비와 의료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암치료를 위해 외국의 VIP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사무디 왕비가 우리에게 자궁암 수술을 받는다는데, 모나코 공주가 위암 수술을 받으러 오는 시대가 열려 우리 국립암센터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퀴즈 프로 진행 경험 역사서 출간

“역사 알려면 그 시대 사람 알아야”

KBS 스포츠 뉴스 진행자로 잘 알려진 成世正(91년 社會大學)아나운서가 최근 위성방송 KBS KOREA의 「서바이벌 역사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이를 소개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역사의 생생한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서 成世正이 그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다. 그가 맡고 있는 「서바이벌 역사퀴즈」는 역사의 현장을 학생들과 탐방하면서 곳곳에서 삼국사기라는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학교 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의 유산이 얼마나 정교하고 과학적이었는가! 흔히 볼 수 있는 한옥 같은 경우 지금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또 우리의 대표적인 과학 유산인 석굴암에서 과학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광화문이 폐쇄 어지개 된 역사적인 비문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생들이 경회루(慶會樓)의 뜻이 무언지 향원정(香遠亭)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경회루는 임금과 신하가 경사스럽게 만나는 곳이고 향원정은 향기를 멀리할수록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과연 중·고등

학교 때 알려주었나요? 이런 교과서에도 안나오는 산지식들을 그는 혼자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고 한다. 『월드컵 당시 국민들이 그동안의 업속주의에서 벗어나 태극기를 사랑한 것처럼 역사도 숨은 지식을 발견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이 책을 쓰게 했죠』

책을 쓰면서 成世正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글을 쓰는 것보다 사진을 구하는 일이었다. 한 것이라도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그는 사진 작가들을 탐방해서 찾아가 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와 각 군청의 문화재 담당

자에게 문의해 구한 결과 최근의 역사자료 사진은 어느 누구보다 많이 소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成世正은 역사를 알려면 현장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역사란 그 유물과 현장을 직접 보아야 그 시대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사람을 알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역사를 문헌에 근거하여 연도순으로 암기하는 역사 공부에서 벗어나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그는 3권까지 계획하고 있어 좀더 뜻깊은 예기들을 담을 예정이다.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한 그로서 시사토코소를 한번 말아보는 것이 희망이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세태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는 소를 하고 싶다고 한다.

(李)



아주대 金夏鎭대학원장

남동생·장남·차녀 등 교육자 일선에서 활약

“한 우물 파며 전통 있는 가족 만들 터”

『吾家無寶物 寶物唯清白 :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다. 보물이려면 오로지 청백이다.』 金夏鎭(62년 文理大學·아주대 대학원장)동문 가족의 5백년 된 가훈이다. 이러한 5백년 된 가훈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金夏鎭동문 가족 중에는 이름난 군장성, 돈 잘 버는 사업가 하나 없지만 一家 대부분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배출하는 교육자로 활약하며 청백하게, 사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아주대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봉직해온 金동문의 일곱 형제 가운데는 남동생 金亨鎭(79년 法大卒·변호사)동문을 제외하고는 金福鎭(64년 農大卒·영남대 교수)동문, 金勝鎭(70년 商大卒·한국외국어대 교수)동문 등 나머지 형제들도 모두 교육자로 있으며, 金亨鎭동문의 부인 역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부모님께서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대신 공부와 관련된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지만 등록금과 학숙비는 달리고 예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고백하마 주겠습니다. 이러한 부친의 지원 때문에 아마도 우리 형제들이 공부만 한 것 같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어릴 적부터 수학과 물리에 능통했던 金동문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순리적이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金政鎭동문 내외, 金東昊·金芝希동문 내외, 金夏鎭동문 내외, 洪錫山동문.

라, 비인간적이라고까지 스스로를 평가한다. 프랑스 유학시절 응용수학으로 전공을 바꾼 金동문은 아주대 개교부터 이곳 교수로 정년을 맞이하게 됐지만, 지난 92년까지 모교에서 수치해석학 강의를 하면서 모교에 대한 사랑도 아낌없이 펼쳤다. 현재 한국정보통신학회 춘계학술대회 위원장,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국제중심 위원장,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 원장 등을 맡으면서 우리 나라의 초·중·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학자임에는 틀림없다.

부친자전이라고나 할까. 자녀들에게 전혀 시키지도 않았고, 권유하지도 않았지만 두 딸과 아들 역시 金夏鎭동문과 비슷한 분야를 전공했다. 장녀는 아주대 전산학과 졸업했으며, 남편 洪錫山(83년 師大卒·한국식품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동문은 한방을 접목한 다이어트 식품과 고혈압 예방식품 등을 내놓으며 관련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 IBM 컴퓨터 개발분야 사내 커풀로 결혼에 골인한 차녀 金芝希(88년 自然大學)동문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美ISI 연구원 및 USC 연구조교수로 있으며, 남편 金東昊(86년 農大卒·90년 工大卒)동문 역시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美ISI 연구원으로 있다. 마지막으로 장남 金政鎭(94년 大學院卒)동문 역시 수학과를 졸업하고 美WPI 객원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어, 2녀1남 모두 부친의 뒤를 이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 가족이 모이면 전공상, 성격상

남동생

金福鎭(64년 農大卒)영남대 교수
金勝鎭(70년 商大卒)한국외대 교수
金亨鎭(79년 法大卒)변호사

장남

金政鎭(94년 大學院卒)
美WPI 객원 조교수

차녀

金芝希(88년 自然大學)美ISI 연구원

사위

洪錫山(83년 師大卒)
한국식품개발연구원
金東昊(86년 農大卒·90년 工大卒)
美ISI 연구원

차남

高學均(64년 農大卒)모교 농성대 교수
高學峰(64년 法大卒)포스코건설 사장
高學進(72년 醫大卒)美 정진파 의사

재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모두들 자신의 전공이 좋아서 택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金동문은 『기독교 집안이라 모두를 교회 갔다가 함께 식사하고, 되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왔죠. 주인마들은 학교 일도, 전록 모임도 모두 다 뛰러하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고 노력했지요. 지금도 일요일에는 절대 뚝이서만 식사하지 않는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한편 부인의 집안에는 차남 高學均(64년 農大卒·모교 농성대 교수)·高學峰(64년 法大卒·포스코건설 사장)·高學進(72년 醫大卒·美정진파 의사)동문이 모두 개성적인데다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金동문 집안과는 다소 대조적이라고 말한다.

너무 학자나 교육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金동문은 고개를 내젓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우물을 파야 뿌리가 내리고, 훗날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전문가가 나와야 전문이 있고 차별성과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表)

「서울대 가족」을 찾습니다

「서울대 가족」코너에 소개할 동문 가족을 찾습니다. 형제,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해 동문이 4명 이상인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사진과 함께 추억이 많은 가족들만의 진솔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 121-812 서울시 미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메일 snua@korea.com



변호사, 감정을 조절하는게 성공열쇠

金柱永(87년 法大卒)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즐 유능한 변호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도파에 불과하다.

결 국 감정이입을 조절하되 감정이
입에 따른 정신적 피로를 소하
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다. 지나친 감정이입은 변호사가
외국인을 자기와 동일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감정이입의 수준
을 제어하되, 법원적으로 격여야 하는
감정이입에 따른 피로는 주변 동료 변호
사들과의 대화로, 내적인 명상과 기도로
소화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 즉
감정이입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이에 따
른 스트레스를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변
호사가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변호
사인 것 같다.

사 법시험 합격자가 1천명을 넘
어서면서 변호사 숫자도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개업중인 변호사 숫자는 5천명을 훨씬
넘어섰고 서울에만 4천명에 가까운 변호
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둘러싼 세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열
감'으로 불리면서 소수 특권층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변호사도 이제는 문턱
을 대폭 낮추고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정
신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나 는 만 27세의 나이에 변호사가
된 이래 만 11년째 변호사라는
직업을 병합에 박아 틀고 다니
고 있다. 그동안 대형 로펌, 서초중 개
인변호사사무실 그리고 지금의 소규모
전문로펌 (일명 뿌따리 룸)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형태의 법률사무소를 경험했
다. 요즘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연구
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만 여전히 변호사로서 외국인들을 대하
면서 항상 변호사라는 직업이 중요하지
만 어려운 직업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
다.

연결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설교시간
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직업은 힘든 직업입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感情移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러한
감정이입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도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아마도 성직자로서의 직업을
업득에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
다. 하지만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
면서 바로 변호사라는 나의 직업을 떠올
렸다.

대 학교 4학년생으로서 사법시험
에 합격했을 때 내가 변호사,
그것도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는 소송변호사가 되리라는 예상치 못
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생
활을 마치고 나는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5년 반을 지낸 후 만 32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소송변호사가 됐다. 시민단
체활동들 계기로 투자자들의 소송을 많
이 맡으면서부터 나는 유독 원천 기업을
윤 상대로 개인, 때로는 피해자 집단들
을 대리하여 소송을 가는 사건을 많이 맡았
다. 소위 강한 쪽보다는 약한 쪽, 가해
자 쪽보다는 피해자 쪽이 많았다. 그러
면서 나는 감정이입 때문에 많은 고통을
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슬프거나 억
울한 일을 당할 일 없이 인생에서 비교
적 순탄한 길을 걸은 사람 중 하나이
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접하면
서, 그리고 형형제제 하에서 그 피해자
들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종종 애가 끊고 밤잠을 이
루지 못하는 억울함을 느껴야 했다. 아
울라 우리 사회의 힘의 논리를 반영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했을 때는 변
호사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꼈곤 했
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막상 일 자체를
수행하는데 따른 피로보다도 훨씬 더 큰
정신적 피로를 가져온다.

변 호사들은 때때로 이러한 감정이
입을 피하고자 변호사직을 그만
두기도 한다. 아니 변호사활동
은 계속 하더라도 법정에서 외국인을 대
리하는 송무 일은 중단하는 경우도 있
다. 실제로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변호
사들이 일찍 변호사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때로 변호사들은 이에 감정이입
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어기제를 스스로
의 마음속에 구축해 놓기도 한다. 그러
한 방어기제를 개발하면 변호사로서의 활
동은 순전히 생업으로만 인식하는 냉정
한 변호사가 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결
국 외국인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해결해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 가는 사람들

閔影恩(92년 人文大卒)로디아폴리아미디(주) 과장

두 달 전쯤 고등학교 동문이자 대
학교 동문인 한 친구가 미국으
로 이민을 떠난다고 했다. 수년
전부터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던 그 친
구는 우리 나라가 너무 싫어서 간다고
했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 중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진 것은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써야 빠진 정치
에 신물이 나서 떠나고, 개인의 빛이 보
이지 않는 지옥 같은 교육현실이 싫어서
떠나고, 요리조리 반말을 피해 자기 이
익만 쫓는 기업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
이다.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그 친구의
남편도 모교 동문이다) 『국립대에서 나
랐으므로 대학을 다니 사람이 그러면 되
는냐. 그래도 우리가 바게 가려고 노력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론 떠나는 사
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코웃음거리라
볼과하다.

이민 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뜻이 있고 꿈이 있어서 자기 삶
의 당당한 개척자로서 이민을 간다면 오
히려 기뻐해 줄 일인 지도 모른다. 꿈과
뜻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민을
가고 그렇게 이민간 동료들을 잘 아우를
수 있다면 우리의 국력은 더욱 성장하여

세계에서 그리 쉽게 알보지 못하는 나라
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문 제는 그 이유가 「이 나라가 싫
어서」라는 데에 있다. 일제시대
에 필박을 못 견뎌 이민 아닌 이민
이민을 갔었고 광복 후에는 먹고 살 일
자리를 찾아 이민을 갔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이민이라니! 나라
찾기 위해 삶의 터전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 온갖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들이
물으먼 지하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인
이다.

내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내가
싫어하는 이 나라를 어느 누가 좋아하고
어는 누가 잘 가꾸어 주겠는가? 자기 나
라는 변변치 않았음 이민을 간들 그 나
라에서 어찌 결코 담담하게 살기가 어려
울 것이다.

이 나라에서 어려운 것 없이 자라고,
부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일수록 외국으로 떠나려 하고, 외국을
더 찬양하고 우리 나라는 아직도 한한
모지라는 나라인양 자조하는 말을 서슴
지 않고 한다. 자신은 우리 나라 대학의
교수이면서 자식은 꼭 외국대학을 보내

려고 하고, 심지어 중학교부터 외국에서
다니게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나라에서 불만이 많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현실 개선에 큰 벽을
느끼더라도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나라에서 보
대준 돈으로 공부할 한 국립대 출신이라
면 말이다. 특히 이 사회에서 여러 면에
서 특별대우를 받고 살아온 우리 서울대
출신은 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최 근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의 국
민투식이 외환위기가 이전과 비스
한 정도로 회복됐지만 빈부격차
는 훨씬 심해지고 국민층의 비용도 더
늘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인천에서
자신의 세 아이를 창 밖으로 내던지고
자신도 뛰어내려 자살한 여인의 이야기
가 보도됐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사
람들은 아무리 팔아들어도 빚만 늘어가
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내 폭탄 행기
면 된다는 짧은 생각에서 빚어진 현실이
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
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



다. 우 리 나라를 공동운명체로 여기는
나같은 사람을 세계가 한 나라
처럼 돌아기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국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
나라가 잘 살려면 중소기업이 튼실해야
하고, 세계가 평화로워려면 각 나라가
튼실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
에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성정시켜야 한
다. 그렇게 모든 나라가 튼실해 진다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제멋대로 이라
크전과 같은 명분 없는, 자기 이익만을
위한 전쟁을 함부로 일삼지 않을 것이
다.



85 (주)타이젼

온라인 서비스 통해 국내 최대 바둑정보 제공

실시간 대국 생중계·동호회 등 네티즌 사로잡아

최근 레저 및 여가생활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동시에 최상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 그 중 가장 간편한 것이 인터넷을 통한 웹 서핑. 하지만 여러 사이트를 플러디해보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필요한 자료가 없어 해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 유익하면서도 알짜배기 정보만을 제공하는 즐거운 사이트가 있다.

조훈현, 이창호, 유창혁 9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바둑.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두뇌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바둑을 (주)타이젠(사장 劉俊烈·77년 社會大學)이 운영하는 바둑사이트(www.tygen.com)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포털을 지향하며 한·중(대만까지)·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이젠은 초보부터 고수들까지 24시간 제공되는 대국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총 9개의 강좌로 구성된 바둑강좌, 국내 최고의 바둑 팔진이 참여하고 있는 결판, 서능욱 9단과 직접 지도대국을 벌일 수 있는 Q&A, 바둑만화, 조훈현·이창호 스노리, 기사수첩, 타이젠 아카데미, 최신 기보감상 등 국내 최대의 바둑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10만명이 접속해도 연결이 끊이지 않는 서버를 구축, 국제대회 및 프로들과의 이벤트를 마련해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콘텐츠를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무료로 제공한다. 두 사람이 바둑을 놓지 않더라도 언제든 접속하면 경기를 펼칠 수 있으며, 특히 서로의 양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대화 창을 통해 언제든지 상대방과 얘기



劉俊烈 사장

를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전전 하면서도 질적인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네티즌들이 증가하면서 바둑 동호회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의 동호회는 대국을 하려면 오프라인 또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으나 타이젠에서는 이를 하나로 통합, 동호인들이 한 곳에서 얼마든지 바둑을 즐기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관여해 우수한 동호회에겐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연말에는 「송년 이웃돕기 자선대국」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등 따뜻한 배려의 마음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모든 주체가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욕구와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처럼 타이젠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접받는 사이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다. 다년간의 개발경험과 게임 및 실시간 서버를 다룰 수 있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바둑과 관련된 교수 및 외부 기술자

문 그룹들을 섭외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바둑 고수 조훈현, 이창호, 유창혁씨 등을 초빙하고, 중국의 유명 사이트(tom.com)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콘텐츠와 기획면에서는 타 사이트를 능가하는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 바둑 콘텐츠로서 세계 최초로 N:1(모든 회원이 지정된 1명의 고수와 게임을 펼칠 수 있는 것) 대국 시스템 등 독창적인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타이젠의 인기는 더욱 치솟았다.

2000년 3월 (주)ICBL로 시작, 2001년 3월 (주)타이젠으로 상호를 변경한 타이젠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2002년 8월부터 홈페이지를 웹진 체제로 전면 개편, 바둑조선(baduk.chosun.com), 스투바둑(baduk.stoo.com), 옛츠케이팅(baduk.365.co.kr), 코넷바둑(www.kornet.net), 코넷월드(kw.tygen.com), 이창호 홈페이지(www.leechangho.com) 리뉴얼, 네이버교육

센터(edu.naver.com), 라이프 조인스(life.joins.com) 등의 사이트에 바둑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협력업체로는 Lets KT, 코넷월드, 네이버, 코넷,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스포츠두메이, KBS, 바둑TV, 삼성화재배, KT배 마스터즈, KAT시스템배 등이 있으며, 주요 주주로는 동양메이저, 동양증권, 대이콤, 하나로통신,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다우인터넛, 싸이월드, 선우엔터테인먼트, 에어미디어 등의 기업체와 조훈현, 이창호, 유창혁, 서능욱 9단 등 40여 명의 주요 프로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접속자 수 4천명을 자랑했던 신생 사이트 라인바둑(www.livebaduk.com)과 합병한 타이젠은 국내 인터넷 바둑 최강자로 군림하게 됐으며, 여러 게임개발 전문업체와 제휴하여 바둑을 기점으로 한 다양한 보드게임(오목, 장기, 파퓰, 양고기, 오목로, 순장바둑, 바둑퀴즈, 묘수품이, 연구바둑 등)을 개발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劉사장은 「21세기 정보혁명의 총아인 인터넷 기술과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바둑 콘텐츠를 접목한 서비스를 통해 바둑을 전세계인의 「Mind Sports」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세계적인 경계를 넘어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구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表)



2003년 KAT시스템배 통합챔피언전 시상식.



타이젠 홈페이지.

모교소식

「통일화 연구」에 1백억원 투자

베를린대학과 관련 협정 체결

모교는 통일시대 한국을 대비하고 통일화의 학문적 체계정립을 위해 2003년부터 10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교는 지난 7월 23일 「통일화 전문가들의 정책연구가 이미 끝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통일화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초 연구자정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화연구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15명의 위원을 임명했으며, 통일화 연구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올해 예산(간접연구경비)에 이미 1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사업은 기획연구 과제에

약 3억원, 자유연구 과제에 약 4억5천만원, 통일포럼에 약 2억원 등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10년간 총 1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鄭震熙총장은 지난 7월초 독일의 경험이 있는 독일을 방문해 베를린대학과 통일화 사업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으며,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매칭 펀드」 지원을 약속 받는 등 이번 연구사업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美好버드대의 연청연구소와 고려대의 북한연구소 등 그동안 국내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통일화와 체계를 재정립하고, 모교는 통일화 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대 학장에 朱尙涉교수 선임

농생대 학장에 李茂夏교수



약대 朱尙涉 학장



농생대 李茂夏 학장

지난 7월 26일 약학대학 신임 학장에 제약학과 朱尙涉교수가 선임됐으며,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임 학장에 동물자원과학과 李茂夏교수가 취임했다.

朱학장은 1969년 모교 약대 약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

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모교에 부임, 日청경대 객원교수, 美 존스홉킨스대 연구원, 모교 약대 부학장·신약품개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과학진흥회 국가시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李학장은 1975년 농대 축산학과를 졸업, 美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 모교에 부임했으며, 美 아이오와주립대 방문연구원, 교육부 농업과학연구지원사업 심사평가위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겸 임업연구원,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발전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과대학

梁玟熙교수 임용키로



법과대학(학장 安京煥)은 지난 7월 24일 2학기부터 梁玟熙교수(사진)를 「법여성학」 담당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대에 여교수가 채용된 것은 법대 설립 후 5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984년 모교 가정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에 편입한 梁교수는 사회학과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美 뉴욕 뉴스쿨(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전통과 근대성의 교차로에 선 한국 가족법」을 통해서 본 법여성학의 전망」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우리 나라 가족법과 한국인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문을 썼었다.

梁교수는 「사회과학과 법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열고, 가족법과 성폭력 등 여성 인권 문제, 나아가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8월 20일까지 후보 추천 접수

서울대인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 받습니다.

매년 개교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 한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 행사가 각계 동문들께서 격려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880-5081, 5082)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빛물연구센터

「유엔환경계획」과 공동협약 맺어

빛물연구센터(소장 韓武榮)는 지난 7월 3일 관악캠퍼스 공학연구소에서 유엔환경계획 국제환경기술센터(UNEP-IETC)와 빛물이용과 담수자원의 관리 등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빛물연구센터는 빛물을 저장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여 안전한 사회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의 물과 에너지, 담수

자원의 이용을 통해 친환경 공간을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빛물이용연구, 한국 빛물모으기 운동본부의 활동을 바탕으로 최근 정식 연구센터로 발족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의왕의 감파중학교와 강원도 육군 노도부대에 빛물저장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鎬)

미술작품

安末煥作

<작가약력>

- ▲81년 모교 미술 회화과 졸업
- ▲96~03년 개인전 5회
- ▲97년 제7회 서울·봄전
- ▲98년 한국현대조형작가회 드로잉전
- ▲99년 황토작가초대전
- ▲00년 서울대학교와 새 천년전
- ▲01년 그림이 있는 도자기전
- ▲02년 연안산출물제 종전작가 초대전
- ▲03년 한국현대미술 100인 초대전
- 한국현대미술 국제교류협회 회원
- ▲현재 한국현대미술가협회 회원
- 성남한경미술연구소 운영위원



「나루--관계」, mixed media on Canvas, 91×116.7cm, 2002.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따뜻한 가슴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야

白勝基(김원대 수석부총장)·張惠容(73년 美大卒·청주대 교수)등은 의사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엘리트주의와 학벌주의의 병폐를 얘기하면서 그 원인을 서울대에서 찾는다. 서울대 때문에 엘리트주의와 학벌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또 서울대 출신은 특권층의식이 강해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동료들끼리도 단결하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자주 본다. 이러한 견해 혹은 진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대체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한 논쟁은 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되고 있으며, 열기 또한 뜨겁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한 가운데 위치한 서울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병폐 중 하나인 학벌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중심에 서울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대가 마치 그 원흉인 것처럼 비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해 서울대뿐 아니라 서울대 출신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누가 뭐라 해도 서울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임은 분명하다. 이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급 인사의 상당수를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데서 잘 드러난다. 얼마 전 모 월간지에서 한국의 지도급 인사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2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국내 1백대 상장기업의 대표이사(CEO) 중 62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30대 기업 임원의 29.9%가 서울대 출신으로 조사됐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문화와 시스템에 있는 것이지만 서울대나 서울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는 교육수준이 극히 높았던 시절 국가적 차원에서 고급주류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서울대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었다면 모든 인적·재정적 지원을 서울대에 집중하면서 고급주류 배출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결과적으로 「서울대 제1」이라는 학벌주의를 만연시키는 역기능까지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엘리트주의와 학벌주의의 병폐를 논의할 때 서울대를 한 사례로 들 수는 있겠지만



서울대, 나아가 서울대인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대에는 오랜 친구인 언어학과 文洋秀(63년 文麗大卒)교수가 있어서 더 각별한 정이 있다. ROTC 동기인 文교수와는 동역장교로 함께 근무했고, 미국 유학시절 함께 자취를 하며 교학을 했 다. 文교수는 서울대 어학연구소장으로 재임 당시 TEPS의 개발과 시행에 크게 기여했으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반을 닦은 선비형 학자이다.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가진 신앙인이며, 필자와 함께 로타리클럽(Rotary Club) 활동을 하며 「Service above self」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자랑스러운 봉사인이다.

내가 매우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 내가 꼽았고 있는 경원대학교의 李吉女(57년 韓大卒)총장이다. 가전업체 김병원 설립자이기도 한 이 분은 여성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인성에서 개인임의로 출생해 김병원을 국내 4위권에 드는 골치의 병원으로 키워낸 「의료계의 여걸」이다. 나는 이 분이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온갖 역경을 헤치고 병원을 키워낸 점도 존경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더욱 존경스럽다.

李吉女총장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과 초·중·고교 등 모교에 매년 정기적으로 의료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시다. 서울대 의대에 대한 애정은 더욱 각별하다. 남침도 말기 어렵다는 의대 동창회장을 벌써 5회째 연임하며 의대 동창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등 동문과 후배들을 위해 온갖 정을 쏟으시고, 한국에서 열리는 동창회뿐 아니라 미주지역 등지에서 열리는 동창회에도 거의 빠지지 않으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인들이 다소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결코 이기적이거나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며, 동료끼리의 단결심도 대단히 강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풍이었던 정권의 권위와 역학을 애썼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서울대나 오지 않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실을 서울대인들이 마음속으로 느껴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세계 최초로 멀티매이션(Multi Layered Animation·2D와 3D, 미니처 촬영의 복합기법)제작기법을 이용했다는 작품답게 장대한 도입부와 엄청난 스케일 또한 관객을 압도하지요. 그러나 웅장한 화면에도 불구하고 구성은 엉성하고, 논리는 뜬구름 같고, 대사는 빈약합니다.

좋은 영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재미와 정보, 메시지,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면 탄탄한 스토리와 뛰어난 영상, 웃음과 눈물을 자아낼 수 있는 대중성, 오래 기억될 명대사와 명장면, 시대의

까 싶어 아깝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브루스 울 마이티」가 떠오른 건 바로 그런 까닭이지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한 「브루스 울 마이티」는 코미디물입니다. 이 역시 내용은 단순하지만, 지방 방송국의 라디오인 부루스 놀런이 도대체 되는 게 없는 인생에 분통이 터져 신에게 실타래를 해대자 「옴니프레젠티스(omnipresent : 어디에나 있는)」라는 회사의 청소부겸 사장으로 등장한 하나님 이 불러 「그래, 그럼 1주일만 내가 해봐라」 합니다.

이 영화의 함은 이런 메시지들을 거칠한 주제어 아닌 일상의 에피소드에 담아 내는 데 있습니다. 하릴이면 거칠 소파 옆에서 오줌을 싸는데 예언자를 바쳐서 살해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처음엔 거칠소파를 통해 내놓고 다음엔 같은 무늬의 방석을 이용해 성공을 거두곤 「Good~Boy!」라며 기뻐하는 대목은 관객에게 꽤 귀뚜라미를 안깎니다.

이제 첫 만남을 때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극한 예언이론과 할리우드 극영화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짐 캐리의 과잉연기도 우습고, 편한 기록목적 결말도 싫고, 「주제를 알고 살라!」식의 설교는 더더욱 싫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 모든 게 할리우드의 철저한 상업적 계산의 결과라며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도 가능할 테구요.

그렇지만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하는 건 모두 감지 앓을런지요. 극장 앞에 관객이 연일 구름같이 모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원더풀」을 외칠 수 있기를 바라는 건 「원더풀 데이즈」 제작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한국인인 저 역시 그렇기 돼서 수차례 제이의 캐릭터모델도 불러다게 팔리기를 바라구요.

나만 좋은 영화는 돈과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은 마음속에 있다. 같은, 평범하지만 영원한 철학을 거부할 수 없게 전달할 수 있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그것을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에 맞게 마무리 줄 아는 감독과 배우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닌가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화는 언제쯤 여성을 우스개나 경계의 대상이 아닌 「소중함」 존재로 그려내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말합니다.

「원더풀 데이즈」와 「브루스 울 마이티」

극산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Wonderful Days·감독 김은영)를 봤습니다. 7년 동안 1백26억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작품이 과연 어떻게 공극했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세계가 멸망한 2142년. 오염물질들이 세지기로 삼는 침전도시 「एको란」과 소외지역인 「마르」의 생존을 건 투쟁 및 두 지역 남녀의 삼각관계가 기동줄거리지요. 「원더풀 데이즈」는 주인공 수하가 첫사랑의 연인인 제이에게 약속한, 부원 화석이 아닌 피란 하늘을 보여줄 날을 의미합니다.

지구 멸망, 오염물질로 유지되는 남태평양의 인공도시, 산맥반은 지배자와 그 밑지 못한 피지배자의 숙명적 대결, 작과 의 사랑, 어린아이의 동굴, 코믹한 조연들, 회화같은 한국적 이미지 등 영화의 구성요소나 열개는 훌륭합니다.

흐름에 대한 통찰 등이 있어야겠지요. 애니메이션에 여기에 컴퓨터그래픽을 비롯한 기술적 요소가 첨가 돼야겠지요. 「원더풀 데이즈」의 경우 여기에 한국적 이미지까지 요구됐을 테니 실로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극장들을 나서는 관객들이 「도대체 무슨 소니냐, 고개를 갇혀서」 「생각나는 대사 한 줄 없다」는 주단한 거품한 주제나 세계 최초의 멀티매이션 제작기법이 무슨 의미를 가질는지요.

적어도 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한국영화 사상 최고액이라는 엄청난 돈을 부수었던 만화영화의 저미된 재미, 액션물의 긴장감이며 긴장감, 환경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며 메시지, 진실한 사랑과 우애를 주는 감동이며 감동 중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닐

그러나 신 노릇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싹대엄(www.yawhe.com) 메일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리 처리해도 끝이 안나고, 하는 수 없이 몽땅 「에스」라고 답하자 40만명이 복권에 당첨되는 흥에 1인당 당첨금이 17달러에 불과,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원을 이룬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지극히 통속적이고 환락하기 짝이 없는 스토리이지요. 그러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육체노동은 신성하다. 하나님도 대접받을 들고 청소한다. 「기적의 능력은 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모든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다.」 「사람에게 각자 부여받은 재능이 다르다.」 「훈련의 힘은 놀랍다」 등등.

SNUA OPINION LEADER

「창조적 소수」와 「희생적 소수」

그동안 우리 나라 기업은 1970년대 에너지 위기,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 위기,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 위기 등 수많은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여 살아남았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러한 도전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주체를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다. 과연 창조적 소수만으로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일까? 이에 대해 코교수는 창조적 소수 못지 않게 국가나 기업 등의 공동체가 존속, 발전하는데는 공동체를 위해 자기희생적으로 일하는 희생적 소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역사 속에는 眞理가 있다. 무엇이 흥망을 결정하는가? 역사학자 슈펜글러(Spengler)는 生命週期理論(life-cycle theory)으로 역사 속의 흥망을 설명했다. 만약 이 주장이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 인간이 창조한 조직에 대해서도 맞다면 이들 조직도 자연계의 有機體처럼, 탄생, 성장, 성숙, 그리고 노쇠기를 거쳐서 결국 사멸의 조직에 대해서도 맞는다. 생명주기를 하여 있는 모든 유기체는 평균수명을 가진다. 생명주기를 과 평균수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생명주기에 의해 지배된다면 기업도 평균수명을 가질 것이다.

미·일 기업의 평균수명 비교

과연 그런가? 일본의 日經비즈니스(Nikkei Business)지는 1896년 이래 1백 년간 일본 1위 기업들의 흥망사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들 기업의 평균수명이 30년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기업 2천개 회사를 샘플로 선정하여 그들의 평균수명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技術에 기반을 둔 미국 대기업의 평균수명은 10년 정도이다. 믿기 어려운 통계이다. 그러나 산업별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짧은 평균수명에 이해가 간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에는 1910년대에 자동차 제조회사 수가 2백여 개에 달했다. 이들 사이에 자유경쟁이 진행되면서 살아남은 회사수가 1930년대에는 20개사, 1960년대에는 4개사, 오늘날에는 3개사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화학제품 등 모든 산업분야가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10년 정도의 짧은 평균수치가 나온 것이다. 대기업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서 왜 미국 기업의 평균수명이 일본보다 짧은지 생각해 보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다. 경제 및 산업 활동이 자유로울수록 자유경쟁, 즉 생존경쟁은 격화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은 정부의 허가 없이 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자동차 제조회사가 (현대, 기아, 대우, 아세아, 쌍용, 삼성,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8개

사였다. 그러한 것이 여러 회사가 부도나면서 국내 타사 혹은 외국 기업에 팔린 것을 생각해 보자. 만약 경제 활동을 정부의 통제 없이 완전히 자유방임한다면 모든 산업분야가 우후죽순이 되면서 더욱 많은 기업이 부도나고, 말할 것이 다. 생존경쟁이 심해질수록 기업의 평균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 평균수명은 그 사회의 自由度(degree of freedom)의 함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은 미국에 비하면 정부의 통제가 더 많고 따라서 산업 활동의 자유도가 낮고 그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기업의 평균수명이 미국보다 3배나 높은 이유가 있다. 우리 나라도 민주화가 진전되어 자유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평균수명은 앞으로 계속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 중에는 평균수명을 훨씬 초과하여 장수를 누리는 기업도 많다. 예컨대, 듀폰(Du Pont)사는 1802년에 창업했으나 2백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화학분야에서 세계적상에 군림하고 있다. 이런 超장수기업이 Du Pont 이외에도 무수히 많으므로, 슈펜글러의 생명주기이론만으로는 기업의 흥망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슈펜글러의 생명주기가설을 경험학적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도전에 성공한 「창조적 소수」

토인비(Toinbee)는 挑戰(challenge)과 應戰(response)이라는 개념으로 역사 속의 흥망을 설명했다. 가혹한 자연환경이나 外敵의 침입 등 어느 문명권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의 발생을 토인비는 도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이들 문명권이 응전에 성공하면 그 문명권은 계속 존속, 발전할 수 있고, 실패하면 소멸해간다는 것이 토인비의 역사 가설이다. 토인비 가설을 경험학에 도입한다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어떤 도전에 대해 기업이 응전에 성공하는 한, 그 기업은 Du Pont처럼 평균수명을 초월하여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 나라 기업은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 1980년대 후반의 노사분규 위기,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IMF구제금융 위기 등 무수히 많은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여 살아남았다.

도전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主體를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라고 불렀다. 따라서 토인비에 의하면 역사 속을 살아가는 어떤 조직이 계속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창조적 소수의 탄생 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 소수만으로 무한경쟁의 역사 속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생존의 필요조건을 자연의 생태계까지 확장하여 생각해 보자.

태양에너지와 일목불일치

인간이 먹는 모든 식물성 식품은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光合成하여 만들어낸 것이고 육류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도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이 사물을 먹고 만들어진 영양물질들이다. 결론적으로 인

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너지 덕분에 만들어진 식품과 에너지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마운 태양에너지 그 자체는 어디에서 오는가?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하나로 변화하는 화학반응이 계속 일어난다. 이 때 반응 前後의 질량이 일치하지 않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질량단위 1인 수소원자 4개가 모여서 헬륨을 형성하면 헬륨의 질량은 4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헬륨 원자의 질량은 3.975가 된다. 반응 전 질량의 0.6%가 어디로 사라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消失된 다량의 질량(M)이 E=MC²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것이 태양에너지다. 다시 말하면 0.6%의 질량이 자신을 소실(희생)시켜서 지구 상 생명체의 삶을 지켜주는 태양에너지가 된 것이다.

자연의 생태계에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많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군집생활을 하는 草食 동물들, 예컨대, 일목불일치(zebra) 무리는 계절이 바뀌면 먹이를 찾아 지역을 이동한다. 이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강이 있을 경우, 이 강에는 약자들이 이들의 이동을 기다린다. 아무리 기다려도 약자들이 몰려나지 않으면 무리 맨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왔던 지도자 한 마리가 돌 속으로 뛰어 들어 약자와 싸운다고 한다. 이 희생의 제물 한 마리를 약자들이 먹어치우는 동안 나머지 무리들은 무사히 강을 건너고 있다. 강에 뛰어 들어 약자의 먹이가 된 그 높은 성적이 급해져서야, 아니면 자기 집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義勇成仁한 것인가?

서독에 파견됐던 간호원들

우리 인간사회에도 가족, 직장, 혹은 국가를 위해 자기희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196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위기로 중단되면서 우리 나



尹 錫 喆

- 1958년 모교 문리대 독어독문학과 입학
- 1963년 모교 문리대 물리학과 졸업
- 1971년 美韓실베미니아대 경영학 박사
- 1971~73년 켈리포니아대 조교수
- 1973~74년 켈리포니아대 조교수
- 1977~78년 獨逸볼프스부덴 연구교수
- 1974~현재 모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동생이나 누나가 섬유공장에 나가 일하던 시절이었다. 젊은 간호원들이 대거 서독행을 지원한 것도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였다.

서독에 간 간호원들은 「언제나 웃는 미소로, 열심히 일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급료는 서독 은행에 머물지 않고 받는 즉시 한국으로 송금됨으로써 서독 정부의 예산을 뺏아갔다. 한국은행에 입금된 자료에 의하면 서독 간호원들이 송금한 액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아직 한국 경제의 수출 능력이 미약했던 1960년대에는 이 송금액이 수출액의 10%를 상회하는 해도 있었다. 이렇게 자기희생적으로 열심히 일한 누나이나 여동생 덕분에 대학을 졸업한 남동생, 오빠들이 한국 경제건설의 주역이 됐다. 그래서 서독 정부가 엄려했던 차관상환은 「간호원들이 예치한 예금이 아니라

〈표〉 서독 간호원 송금 (단위: US \$1,000)

연 도	1968 ~ 69	1970 ~ 1979
송 금 액	2,790	132,018

라는 외환부족 위기에 빠졌고, 우리 정부는 서독에 1.5억 마르크(당시 환율로 미화 약 3천만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차관의 상환능력을 의심한 서독 정부는 한국의 간호원들을 대신 서독에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호원들이 서독에서 받는 급료는 서독의 은행에 예금될 것이고, (한국이 차관을 늘 값을 경우 이 예금을 동결하면) 이것이 한국에 준 차관의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한국 간호원들의 서독행이 시작되고 1970년대 후반까지 서독 1천 1백 2백여 명의 간호원들이 외화 벌이에 나선 것이다. 당시의 한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이 3백달러를 넘지 못하였고, 각 가정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등록금 마련이 절박한 시대였다. 남자들이 공부시켜야 가정이 발전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오빠나 남동생의 학자

이들로부터 송금 받아 공부한 오빠와 동생들이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문제없이 해결됐다.

「희생적 소수」가 넘쳐나는 사회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국가나 기업, 공공 단체는 물론 가정도 공동체인 셈이다. 이들 공동체가 존속, 발전하려면 공동체를 위해 자기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희생적 소수(sacrificing minority)라고 부른다.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 못지 않게 희생적 소수 역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 13위권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 창조적 소수 못지 않게 희생적 소수들도 많았다. 앞으로 이들이 계속 배출되지 않는 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요원할 것이다.

건강을 지킵시다

태아 심장 질환의 산전 진단

태아 심장 불리력은 태아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장 병을 산전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태아의 심장병은 선천성 심장병 외에도 부정맥, 심근증, 산모 질환이나 산모에 투여된 약물에 의한 2차 질환과 종양 등의 질환이 있다.

태아의 심장은 임신 3주부터 발달을 시작해 7주 말경에 완성된다. 그 중 심장 기형의 발생 빈도는 신생아 1백명당 1명이고, 간혹 염색체 질환이나 유전자 질환과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부모는 결코 건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0~40%가 1년 이내에 사망한다.

태아의 심장 기형은 심초음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하며 혈액 검사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태아 심초음파는 태아에서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이 되거나 임신부에서 태아 심장병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며 시기는 복부 또는 초음파로 임신 16주부터 가능하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산과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염색체 이상 등 태아 기형, 태아 수종, 태아 발육 부진, 태아의 부정맥, 임신부의 선천성 심장병, 임신 중 술을 많이 마셨거나 리치움 등의 심기형 유발 약물을 복용한 경우, 대사성 질환이나 견체 조직 질환을 앓는 임신부, 양수 과다



金仁豪(81년 醫大卒)
무지개 소아과 원장

증, 풍진이나 CMV를 앓은 임신부, 가족력에 누산, 말한, 결절성 경화증, 선천성 심장병의 병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는 위험도가 낮은 임신부라면 산전 초음파로 심장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태아 심초음파로 선천성 심장 질환 중 일부 심질환은 진단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복잡 심질환은 산전 진단이 가능하다.

태아 심장병을 진단하면 의사는 임신부와 가족에게 심장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유전학적 상담을 하고 염색체 검사나 정밀 초음파 등의 검사를 추가로 권할 수도 있다. 태아의 심장병을 요율적으로 치료하려면 다른 의료 분야, 예컨대 흉부외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도 한다.

태아 심장병을 산전 진단하면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출산 직후의 치료가 생존에 필요한 심장병의 경우는 심장 센터에서의 계획 분만을 통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선진적 수술을 예방할 수 있다.

(연락처 : 031-719-6633)

추억의窓

베토벤 「영웅」 들려주던 「별장」 다방 그리워

함춘원 산책하면 교수님과 친구들 기억나

金守經(63년 齒大卒)한서대 치과병원장

40년이라는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다. 그 참푸른 舍春苑의 회상은 젊은 날의 꿈이며 그리운 날의 희망이었다.

우리 나라 현대의학의 모태이고 유서 깊은 시계탑이 있는 서울대병원. 그리고 세월의 의미를 아는 그 등글고 큰 은행나무의 회상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그림자였다.

나는 그 푸르른 1960년대 초반, 그 격동기 때 그곳을 산책하고 4·19, 5·16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그리면서 친구들과 때로는 홀로 사

색과 나의 혼을 찾곤 했었다.

병리의 생리를 끝내고 밖에 나오니, 가을날 회화나무 밑에 낙엽은 쌓이고 부슬 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친구들과 길을 나와 돌아가면 별장다방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 눈이 동글고 아담한 여인이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를 가져오고, 베토벤의 「영웅」을 들려주고는 했다.

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빨간 노란 나무 잎이 쌓일 때 나는 미생물학교실 앞을 지나노라면 인자하시고 은은한 朴鍾永교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친구들은 미국으로 또 天國으로 소파 없이 가버리고, 그리고 세월의 뜻은 舍春苑을 밟아 고는 했다. 하숙집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온 세계가 도금된 듯한 흰 밤에도 우리는 행복

하고 포근했다. 세월의 강은 도도히 흐르듯.

노타나무와 은행나무 숲이 우거진 舍春苑의 여름, 강의시간이 끝나면 그 숲에서 어린 젊은 날의 꿈들이 지금도 가슴을 적신다. 「아, 시간이 나면 참경원에 가봐」 하지만 아버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다.

아버님은 해방이 되어 외과학교실에 계시면서 여가가 있으면 참경원 뜰을 걸으며 그 격동하던 학계와 삶의 고뇌를 달래고는 하셨을 것이다.



1960년 병리학 실습 후 함춘원 뜰에서.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성호·林和植·孫同鉄·具英實·金圭玟·故 金裕吉동문·필자)

지금도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참경원을 걷고, 참푸른 舍春苑을 산책하면서 다 가버린 교수님들의 부드러운 미소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의 풍경을 읽는다. 지금도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가 그 빈 뜰에 남아 있다.

16:25 참

전 용사의 젊음을 기리는 기념비가 늦가을 낙엽과 잔바람 속에 녹아 내리고 있었다.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게 하라.

의사의 꿈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의사는 환자를 보고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하며 좀더 깊고 넓은 사회와 인류를 향한 뜻과 힘이 살아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의 젊은 날, 그리운 날의 회상은 백자에 철사가 어리듯 내 가슴에 오래 남을 것이다.

林光洙회장

재미동창회에 후원금 전달

본회 林光洙회장(사진)은 지난 7월 초 재미총총회 6대 집행부(회장 李龍路)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미동창회 6대 집행부에 재미동창회 발행 등을 위해 사재를 털어 후원금을 전달했다.



李龍路회장은 "6대 집행부의 마지막 결산을 하고 있는 시점에 사재를 털어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문을 보내왔다.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한림대 劉載天부총장

판악언론인회(회장 安業勳)는 지난 7월 9일 인사동 「다미」에서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의 위원장에 劉載天(한림대 부총장·사진) 부회장을 주재기로 결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판악언론인회는 한국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헌이 크다고 판단되는 동문 언론인을 수상자로 선정해 내년 2월 정기총회 때 시상식을 갖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재, 보도, 활동이 사상 대상이다.

부천지부

단과대별 모임 활성화에 주력

부천지부동창회(회장 金聖文)는 지난 7월 11일 낙원동에 있는 元應(71년 師大入)부천지회, 金文珠(94년 經國大入)지회, 金文珠(94년 經國大入)지회, 金文珠(94년 經國大入)지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聖文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동창회가 비록 폐쇄나 팔파대회와 같은 자체 전폭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동창회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천지부 신하 단과대학들

창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金聖文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단과대학동창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활동이 활발한 의대와 약대, 치대 동창회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써 최근 부천지부 약대동창회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金聖文회장은 부천지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약대동창회장인 金知勳(76년 藥大入)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바 있다.

李世震 前사무총장

명예사무총장에 위촉

본회 林光洙회장은 지난 7월 30일 李世震 前사무총장(사진)을 명예사무총장으로 위촉했다.



李世震 전임 사무총장은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인명록」 3쇄본 발간, 판악언론인회 출범 등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수의과대학

카드사와 업무 제휴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7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소회의실에서 金振珠·林水一·白文英부회장, 장하재전 鄭英彩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 및 장학재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자립스러운 서울대인 및 수의대인 추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씨티은행 Platinum Card와 업무 제휴를 맺어 수의학과 동문들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시 일정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인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고, 64일학동문화 일동이 전달한 3백만원의 기금을 동창회 및 모교사업에 적절히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어느 조각모임

「마리키 오디」 정기전

어느 조각모임(총무 成敬花)은 지난 8월 5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마리키 오디」라는 주제로 전시개막식을 가졌으며 오는 9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모교 조소와 출신 22명으로 구성된 어느 조각모임은 2000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백제로의 시간여행」, 2002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증인문화, 은빛 날개」전을 이미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각 지역 박물관에서 그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전통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번 정기전 역시 전주지역의 미륵사상과 그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 미륵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미술로 재해석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조각과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작가 작품 40여 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원을 담은 공동작품 25점이 출품됐다.

사회학과

동문 걷기대회 개최

사회학과동창회(회장 趙南弘)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모교 金康泰예교수, 宋虎根과장, 한림대 車興泰교수, 李 哲 前국회의원을 비롯해 동문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동문가족 걷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걷기대회는 관악캠퍼스 순환도로 4km를 걷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캠퍼스를 둘러본 참석자들은 교수회관 옆 숲밭식당에서 점심을 들었다.

이어 가진 여흥 시간을 통해 참가한 가족들은 자전거, MP3 플레이어, 라디오, 디지털 카메라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는 동창회에서 준비한 Sun cap과 수건을 나눠줬다.

마로니에회

본회 許瑋사무총장 취임 축하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7월 1일 동창회관 뷔페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신입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許 瑋동문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여러 동문이 축하를 통해 문리과대학이 동창회가 없어 문리대 출신 동문들이 소속감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했으며, 許 瑋총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을 잘 모시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성균관대 인문대 李漢勳과장, 한국무역장

보통공사 辛秉午사장, 李相賢국회의원, 중앙일보 卞相根은설교문, 宋鍾奭 前주미 대사관 공사, 林雲峰세무사, 노이치와 盧正원장, 다산유적 보존회 金南基회장, 鄭銀一 前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李宇鎔 前하나은행 부사장, 安光久 前LG 이사, 宋鍾亨가천의대 대학원장, 崔東祐 前총무M를 사장, 李洪允 前보건복지부 정책실장, 국민연금관리공단 張顯澤이사장, 국제조영 權武一이사장, 李孟懷 前의한은행 지정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고경영자과장

「하반기 경제 전망」 강연 펼쳐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正國)는 지난 7월 3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동문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강연회를 펼쳤다.

삼성경제연구원 정문진 전무가 연사로 나와 「하반기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참석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表)

마평

李元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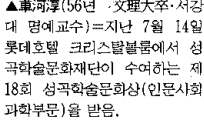
情報化時代일수록, 基礎가 重要한 法...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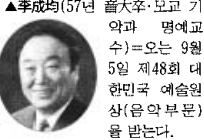
수상



▲李耐暉(56년) 文理大·중앙일보(교문)=오는 9월 5일 제48회 대한민국 예술원상(문학부문)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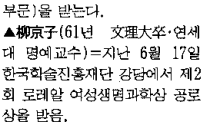
▲李耐暉(56년) 文理大·서경대 명예교수=지난 7월 14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성곡학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8회 성곡학술문화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받음.



▲李成均(57년) 普大·모교 기악과 명예교수=오는 9월 5일 제48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음악부문)을 받는다.



▲李京植(60년) 文理大·모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오는 9월 17일 제48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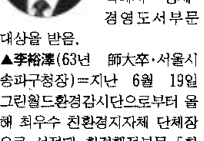
▲柳京子(61년) 文理大·연세대 명예교수=지난 6월 17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제2회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공로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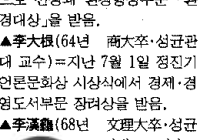
▲禹南龍(63년) 工大·기나전 측사무소 대표=지난 6월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 산 업훈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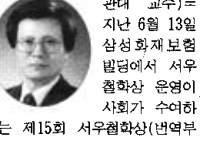
▲尹炳鎭(63년) 文理大·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7월 1일 정진기인문문화상 시상식에서 경제·경영도서부분 대상을 받음.



▲李裕澤(63년) 師大·서울시 송파구청장=지난 6월 19일 그린월드환경감시단으로부터 올해 최우수 친환경지자체 단체장으로 선정돼 환경행정부문 「환경대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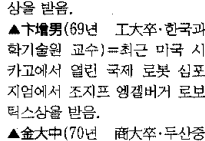
▲李大根(64년) 商大·성균관대 교수=지난 7월 1일 정진기인문문화상 시상식에서 경제·경영도서부분 장려상을 받음.



▲李漢鎭(68년) 文理大·성균관대 교수=지난 6월 13일 삼성화재보험법원에서 서우철학상 운영이 사회가 수여하는 제15회 서우철학상(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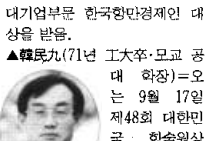
문)을 받음.
▲金榮中(68년) 藥大·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6월 17일 대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제2회 로레알 여성생명과학



상을 받음.
▲李墾男(69년) 工大·한국과학기술원 교수=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로봇 심포지엄에서 조지프 앨버트 로보틱스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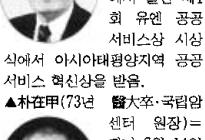
▲金大中(70년) 商大·두산중공업 사장=지난 7월 9일 한국항공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제 무역 증진 및



항공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기업부문 한국항공경제인 대상을 받음.
▲韓民九(71년) 工大·모교 공대 학장=오는 9월 17일 제48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받는다.



▲金敬婭(72년) 文理大·조달청장=지난 6월 23일 한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회 유엔 공공서비스상 시상식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공서비스 혁신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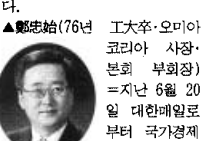
▲朴在甲(73년) 醫大·국립암센터 원장=지난 7월 14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성곡학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8회 성곡학술문화상(자연과학부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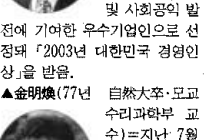
▲崔炯仁(75년) 工大·모교 수리과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제48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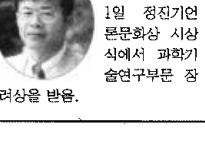
▲鄭忠始(76년) 工大·오미아코리아 사장·변호 부회장=지난 6월 20일 대한매일로부터 국가경제 및 사회공익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돼 「2003년 대한민국 경영인상」을 받음.



▲金明煥(77년) 自然大·모교 수리과학부 교수=지난 7월 1일 정진기인문문화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연구부문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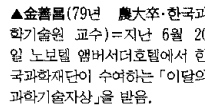
려상을 받음.



▲金善昌(79년) 農大·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6월 20일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서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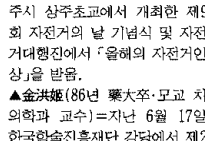
▲鄭斗壽(80년) 社會大·서울시 정무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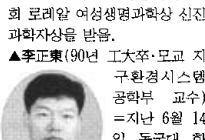
장=지난 7월 5일 「사단법인 자전거사장전국연합회와 경북 상주시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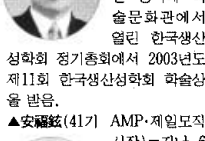
주시 상주초교에서 개최한 제9회 자전거의 날 기념식 및 자전거대행진에서 「올해의 자전거인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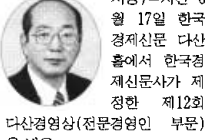
▲金洪姬(86년) 藥大·모교 치위학과 교수=지난 6월 17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제2회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신진과학자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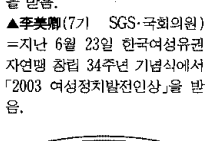
▲李正東(90년) 工大·모교 지환경정보시스템 공학부 교수=지난 6월 14일 동국대 학문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생산



성학회 정기총회에서 2003년도 제11회 한국생산성학회 학술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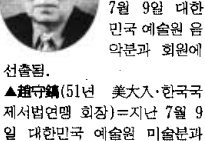
▲安福鉉(41기) AMP·제일모직 사장=지난 6월 17일 한국 경제신문 다산홀에서 한국경제 저신문사가 제정한 제12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 부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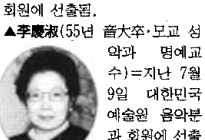
▲李美那(7기) SGS·국회의원=지난 6월 23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총리 34주년 기념식에서 「2003 여성정치발전인상」을 받음.



▲白樂鎭(52년) 醫大·모교 기악과 명예교수·정문대 초빙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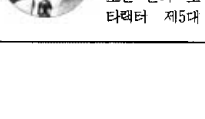
▲趙守鎭(51년) 美大·한국국제제서법연맹 회장=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에 선출됨.



▲李慶淑(55년) 普大·모교 성악과 명예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예술원 음악분과 회원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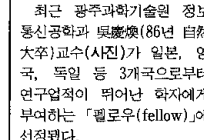
▲柳正烈(52년) 文理大·한국외대 명예교수=지난 7월 3일 사단법인 한국도토리 청소년 인턴-로터럼 제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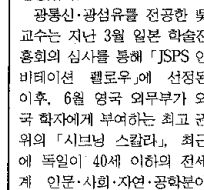
이사장에 취임함.

광주과학기술원 吳慶煥교수

日·英·獨 「펠로우」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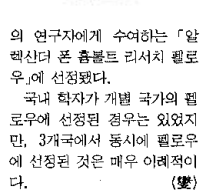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부 吳慶煥(86년 自然大)교수(사진)가 일본, 영국, 독일 등 3개국으로부터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자에게 부여하는 「펠로우(fellow)」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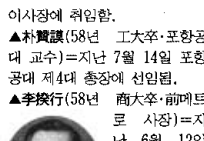
광동산·광섬유를 전공한 吳 교수는 지난 3월 일본 학술진흥회의 심사를 통해 「JSPS 인비타이선 펠로우」에 선정된 이후, 6월 영국 외무부가 외국 학자에게 부여하는 최고 권위의 「사브나 스칼라」, 최근에 독일이 40세 이하의 전세계 인문·사회·자연·공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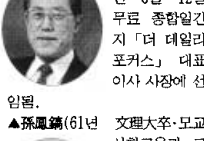
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알렉산더 폰 훔볼트 리서치 펠로우」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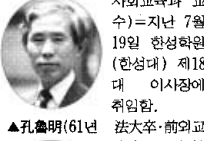
국내 학자가 개별 국가의 펠로우에 선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3개국에서 동시에 펠로우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變)



▲李炳燦(62년) 醫大·모교 기생충학교실 명예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임됨.



▲李萬烈(63년) 文理大·속명여대 교수=지난 6월 3일 국사편찬위원회(차관급)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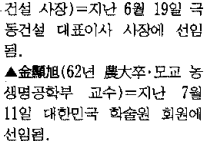
▲陳 稔(63년) 商大·前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최근 서정범부법인 교문에 취임함.



▲姜基遠(64년) 法大·변호사=지난 7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사법인 한 국여성정치영향회 제6대 회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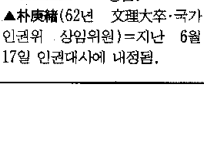
▲姜基遠(65년) 農大·셋별종교장=지난 6월 23일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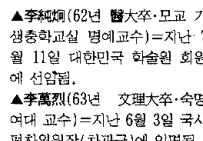
▲金東興(65년) 文理大·前연문중앙위원회 전문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1심위원에 선임됨.



▲金鼎煥(65년) 文理大·前강릉MBC 사장=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연에오락 제2심위원에 선임됨.



▲金學俊(65년) 文理大·동아일보 사장·본회 부회장은=지난 7월 4일 세계정치학회(IPSA) 부회장에 당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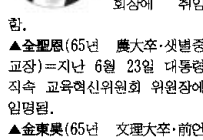
▲李耕一(65년) 文理大·前문회합본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위원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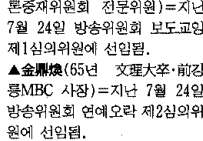
▲李耕一(65년) 文理大·前문회합본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위원에 선임됨.



▲李耕一(65년) 文理大·前문회합본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위원에 선임됨.



▲李耕一(65년) 文理大·前문회합본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위원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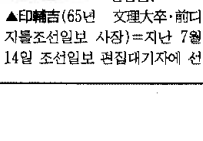
▲李耕一(65년) 文理大·前문회합본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위원에 선임됨.



▲李耕一(65년) 文理大·前문회합본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위원에 선임됨.



▲李耕一(65년) 文理大·前문회합본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위원에 선임됨.



▲李耕一(65년) 文理大·前문회합본 논설위원=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위원에 선임됨.

임명.

▲柳 健(65년) 法大卒·교보리얼코 고보(주)=지난 6월 1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됨.
▲智元(65년) 法大卒·前예술의전당 감사=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연세오락 제2심의위원에 선임됨.

▲金壽長(66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24일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장에 임명됨.
▲宋錫亨(68년) 文理大卒·SBS 상담역=지난 8월 1일 가천의과대학 영산정보대학원 겸임 교수 겸 대학원장에 취임함.



▲李明純(68년) 文理大卒·월간말 대표=지난 6월 20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에 선출됨.
▲鄭義洛(68년) 文理大卒·주제네바 대사=지난 6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직 1년 임기에 자기 의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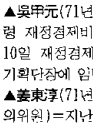
▲鄭鎮基(69년) 法大卒·서울고검장=지난 7월 24일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에 임명됨.
▲安京煥(70년) 法大卒·모교 법대 학장=지난 7월 24일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에 임명됨.



▲梁 建(70년) 法大卒·한양대교수=지난 7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회차회에서 제24대 심임회장에 선출됨.
▲鄭允模(70년) 行大院卒·해외건설협회장=지난 6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2대 이사장에 임명됨.



▲尹在哲(71년) 工大卒·前한솔텔레콤 대표=지난 7월 16일 한국유지조 사장에 선임됨.
▲吳甲元(71년) 農大卒·前대통령 제정경제비서관=지난 7월 10일 제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개발청에 임명됨.



▲姜東淳(71년) 美大卒·KBS 심의위원=지난 7월 22일 KBS 감사에 임명됨.
▲李相龍(71년) 法大卒·前에듀보림공사 사장=지난 6월 12일 한국은행 감사에 임명됨.
▲成榮承(71년) 行大院卒·前한국방광공사 사장=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의 상준관리심의위원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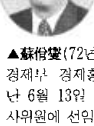


▲金昌世(72년) 工大卒·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지난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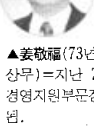
24일 건설교통부 차관보에 임명됨.

▲韓泳泰(72년) 文理大卒·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비서관(연구단장)=지난 6월 23일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제2대 윤장에 선출됨.

▲金在琪(72년) 法大卒·부산지검장=지난 7월 24일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에 임명됨.



▲蘇怡堂(72년) 商大卒·前재정경제부 경제총보기획단장=지난 6월 13일 대한생령 상근 감사위원에 선임됨.
▲朴鍾瑞(68년) 師大卒·한국수자원공사 총무본부장=지난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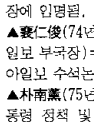
▲姜敬福(73년) 工大卒·SK건설경영지원부부장(전무)에 선임됨.
▲李昌根(73년) 文理大卒·광운대 교수=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에 선임됨.



▲鄭榮浩(73년) 文理大卒·前주방칼라대시 대사=지난 7월 9일 주스웨덴 대사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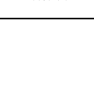
▲梁錫鉉(73년) 醫大卒·삼강관대 교수=지난 6월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한국유방암학회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임됨.
▲安京洙(74년) 工大卒·한국후지프사 사장=지난 6월 9일 일본 후지프 본사 글로벌경영 추진교수 겸 경영집행역(상무이사급)에 선임됨.



▲朴聖杓(74년) 文理大卒·건설교통부 건설정책국장=지난 7월 24일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姜仁俊(7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부국장=지난 7월 9일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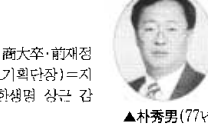
▲朴南薰(75년) 文理大卒·前대통령 정책 및 기획조정비서관=지난 7월 24일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에 임명됨.
▲洪鍾璧(75년) 法大卒·법무부 검찰국장=지난 7월 24일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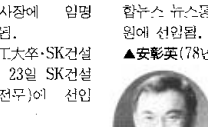
▲全周範(75년) 商大卒·前대우증권 사장=지난 6월 14일 개원한 영산대 지역발전연구원 초대 원장에 취임함.

▲金炳哲(76년) 法大卒·제일화재 상무=지난 6월 11일 제일화재 경영부문 대표이사 전무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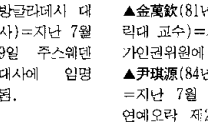
▲李廷漢(76년) 師大卒·CBS 대구방송본부장=지난 6월 27일 CBS 제11대 사장에 취임함.



▲留炳浩(77년) 社會大卒·세계일보 심의위원=지난 7월 1일 세계일보 논설위원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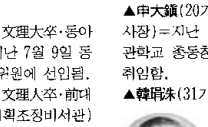
▲朴秀男(77년) 師大卒·서울산업대 교수=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상공민간심의위원에 선임됨.
▲鄭境平(78년) 人文大卒·MBC 기획국장=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설립위원에 선임됨.



▲安彰英(78년) 醫大卒·대한치과 학원장(가능교합학회 회장)=지난 7월 4일 대한소초치치학회와 침림준비위원장으로서 스포츠치치학회를 창립하고, 차기 회장에 선출됨.



▲金寬欽(81년) 社會大卒·가톨릭대 교수=지난 7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선출됨.
▲尹琪源(84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연세오락 제2심의위원에 선임됨.



▲金宰浩(85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2심의위원에 선임됨.
▲李昌成(86년) 農大卒·국민대교수=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연세오락 제1심의위원에 재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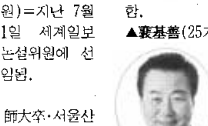
▲鄭泰學(88년) 法大卒·서울행정법원 판사=지난 7월 24일 방송위원회 연세오락 제1심의위원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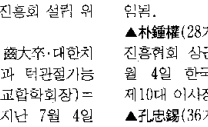
▲申大鎭(20기) AMP·중앙고교(사장)=지난 7월 21일 유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제5대 회장에 취임함.

▲韓瑞珠(31기) AMP·한일스핀텍(회장)=최근 개최된 청주한일 중앙중친회 정기총회에 이르기까지 제21대 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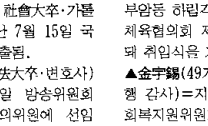
▲朴源弘(40기) AMP·국회의원=지난 7월 2일 열린 한나리당 서울출신 운영위원 전체회의에서 서울지역 45기 지부장을 대표하는 지부장에 선출



됨.
▲金 振(47기) AMP·대한주택공사 감사=지난 6월 13일 대한주택공사 제17대 사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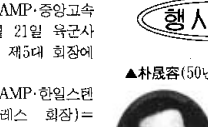
▲李相漢(48기) AMP·삼성전자 AMLCD 담당(사장)=지난 7월 10일 한국정보통신학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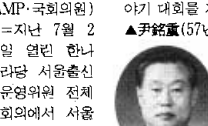
▲李成廷(25기) AIP·정보통신부 전자과(과장)=지난 6월 17일 제2년차 부장 수석전문위원에 선임됨.



▲朴鍾權(28기) ACAD·한국항공진흥회(상근부회장)=지난 7월 4일 한국보존복지의료재단 제10대 이사장에 취임함.



▲孔忠錫(36기) ACAD·국회 보건복지부 수석전문위원=지난 6월 19일 국회 사무처장(차관급)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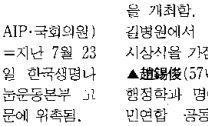
▲南相海(37기) ACAD·하림과 회장=지난 6월 23일 중도구부양동 하림각에서 서울시 생활체육회의 제7대 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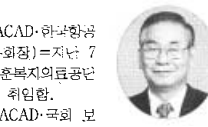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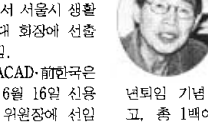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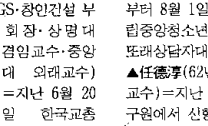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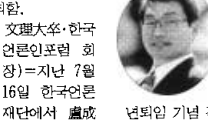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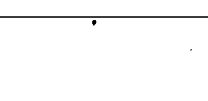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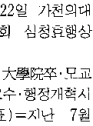
▲金宇錫(49기) ACAD·前한국의행(간사)=지난 6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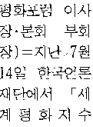
내 방송위원회와 정책 현안과제'를 주제로 오찬 강연회를 개최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결재단 회장·의대동창회장·분회부회장=지난 7월 1일 인천서해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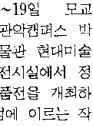
의료센터 가천홀에서 재단 산하 가천의대 김병원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함. 또 22일 가천의대 김병원에서 제5회 심정희영상 시상식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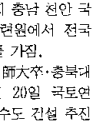
▲趙錫俊(57년) 大法院·모교 행정학과 명예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지난 7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바람직한 재해재단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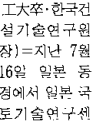
▲金鏡鉉(58년) 文理大卒·세계경화포럼 이사장·분회 부회장=지난 7월 14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세계 열화 지수 2002」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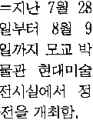
▲鄭錫永(60년) 美大卒·모교 등양화과 교수=지난 7월 7~19일 모교 관악캠퍼스 박물관 현대미술 전시실에서 정년퇴임 기념 작품전을 개최하고, 총 1백여 점에 이르는 작품, 소개지, 드로잉, 서예, 조각, 소장 지필묵 등이 포함된 도록을 발간함.



▲李惠順(62년) 師大卒·한국청소년상담원장=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전국 도래상담자대회를 가짐.



▲任德享(62년) 師大卒·총독대교수=지난 6월 20일 국토연구원에서 신형정수도 건설 추진 관계 공무원, 연구원, 관련 지리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치지리학 시각에서 「전도의 제요인」과 한국의 신형정수도 선정과제」라는 제목으로 특강함.



▲李承宇(63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7월 16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 국토기술연구센터(JICE)와 제1회 한·일 건설기술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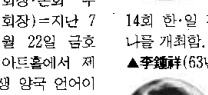


▲李鍾祥(63년) 美大卒·모교 등양화과 교수=지난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모교 박물관 현대미술 전시실에서 정년퇴임 기념 작품전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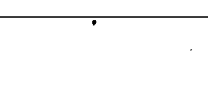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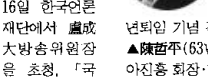
▲陳西平(63년) 商大卒·뉴코리아인존 회장·한국수입업협회장

행사·출간

▲朴鳳容(50년) 文理大·금조그림 명예회장·한중우호협회장·분회 부회장=지난 7월 22일 금조아트홀에서 제7회 한·중 대학생 양국 언어이하기 대회를 개최함.



▲尹銘鎭(57년) 文理大·한국언론인포럼 회장=지난 7월 1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盧成대 방송위원장을 초청, 「국



=지난 7월 23~27일 제주 사인빌 럭셔리 리조트에서 주한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한국수업업협회 CEO세미나를 개최함.

▲曹圭香(64년) 法大卒·한국방송통신대 총장=지난 7월 14일 방송통신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영동대(총장 蔡憲寬)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음.



▲鄭英一(64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농정연구센터 이사장=지난 6월 28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참여정



부의 농업정책에 있어 농업의 확립을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함.

▲李元衡(64년) 司法院卒·국민고충처리위원장=지난 7월 14일 호남대 개교 25주년 기념 행사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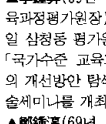


▲金弘經(67년) 法大卒·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지난 7월 23일 전북 익산 남성고 동창회관에서 전국 이업종 교류 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함.

▲李宗宰(68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7월 24일 대전 대에서 「지 반대와의 위기전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함.



▲李鍾宰(69년) 師大卒·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지난 7월 25일 삼정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방안 탐색」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鄭鍾宰(69년) 商大卒·금강강령회 부회장=지난 6월 27일 필레스호텔에서 영문소설 「순이-격랑 위의 여행자」 출판 기념회를 가짐.



▲丁海旺(69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7월 23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프라임뱅크 국제 위크숍」을 개최함.



▲河龍出(71년) 文理大卒·모교 외교학과 교수·모교 국제법연구소 러시아연구팀 책임연구원=지난 6월 6~8일 안면도 유령섬에서 「러시아 제재현황의 역사적 평가」: 국가·시장·사회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을 주제로 위크숍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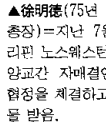
▲張明宰(72년) 法大卒·국민대

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7월 24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중국인민대 법학원 정이근 박사를 초청, 「중국 행정법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함.

▲張惠容(73년) 美大卒·청주대 교수=지난 7월 3~10일 서울 청담동 갤러리 아미에서 열린 제13회 정답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함.



▲徐明德(75년) 美大卒·삼명대 총장=지난 7월 26~31일 필리핀 노스웨스턴대학교를 방문, 양교간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명예박사 학위를 받음.



▲黃昌圭(76년) 工大卒·삼성전자 사장=지난 6월 9일 발간된 아시아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뽑은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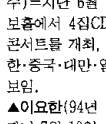
의 스타 25인」에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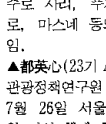
▲康鏞寬(79년) 法大卒·법무부 장관=지난 6월 9일 발간된 아시아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뽑은 「아시아의



스타 25인」에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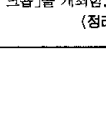
▲李相福(88년) 自然大卒·영동대 교수=최근 세계적인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티스 후즈부」 2003년도 판에 이



어 2004년도 판에도 2년 연속 등재됨.



▲金龍南(91년) 音大卒·국악가수=지난 6월 27~28일 문화일보에서 4집CD 출판 기념으로 콘서트를 개최, 국내 민요와 북한·중국·대만·일본 민요를 선보임.



▲이요한(94년) 音大卒·테너=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독창회를 열어 權熙淳(73년 音大卒) 동문의 파아노 반주로 사리, 푸치니, 레온카발로, 마스네 등의 작품을 선보임.



▲鄭美心(23기 ACAD·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7월 26일 서울 성북동 「성락원」에서 열린 클래식 뉴질랜드 총리 일행과 양국 영화산업협력 증진 행사를 가짐.



▲朴成結(24기 ACAD·신원 회장·한국체육산업연구회 회장)=지난 7월 14~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섬유업계 최고경영자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섬유업계 CEO 위크숍」을 개최함. (정리=安美嬭기자)

新刊

■ 고난을 즐거움으로

—金錫鎬 著



합심사 회장」등인이 펴낸 책으로, 행복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들 주위에 머물러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오직 그것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상식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다. (교육사지·값15,000원)

■ 한국인현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金哲殊 著



한법 제정 55주년을 기념하여 헌법과 정치에 대한 알기 쉬운 지침서를 펴냈다.

金錫鎬는 이 책을 통해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또 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을 알아야 하고, 국민의 좋은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파면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법사출판사지·값10,000원)

■ 그대도 감동은 흐른다

—張忠植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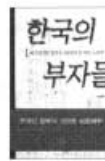
먼저 제1부 전2권으로 출간된 내용은 창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중국과 북한 땅에서 일제 식민지를 겪어내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를 겪어낸 저자의 가족사와 개인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張忠植은 한국 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자료들을 허구적인 세계

의 현실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자료들이 독자들에게 새롭게 해석되고 평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사지·각권 값8,500원)

■ 한국의 부자들

—韓相福 著



모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인 韓相福(61년 文理大卒)등인이 1년 이상 1백여 명의 일부부자들을 만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부자들의 공통점을 정리한 책.

부자들의 목돈 만들기, 재산 불리기, 자녀 교육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노하우와 속내까지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위즈덤하우스지·값11,000원)

■ 흰 그늘의 길

—金芝河 著



시인이자 사상가, 운동가로서 뜨거운 삶의 기록을 보여준 金芝河(66년 文理大卒·명지대 석좌교수)등인이 자신의 글과 사진 일상을 낱말로 풀어놓은 회고록 (전3권)을 펴냈다.

이번 회고록은 10여 년 전 중아일보에 게재되면서 시작됐으나 작가의 개인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최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등을 통해 연재를 마무리했다.

金錫鎬는 「흐름 젊은이들은 내면의 생각의 흐름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욕실」 등을 거치는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낸 두 아들이 이 회고록을 읽고 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재지·각권 값13,000원)

■ 영화를 삼킨 섬

—李消後 著



소설로 담았다. 李錫鎬는 폭력과 억압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탱해 나가는가 하는 소설세계의 맥을 이으며, 정치적 폭력과 억압 속에서 형성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

다. (열림원지·값8,500원)

■ 나는 잠만

인 꿈을 꾸었다

—廉振燮 著



이 시집에는 廉振燮이 틈틈이 써온 1백여 편의 시 가운데 48편이 실렸다.

시집은 일출동에 가까운 가장의 뒷전에서 불가항한 희생을 강요당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가슴 저림, 삶의 이룰배반에 대한 쓸쓸함 등이 절제 세밀하다. (김영사지·값5,900원)

■ 나무

—李世旭 譯



「개미」, 「너」를 국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온 베르베르의 신작을 李世旭(85년 師大

卒)등인이 번역.

「나무」라는 제목은 여기 수록된 한 이야기에서 따온 것으로,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을 나무처럼 제분도로 그려서 검토해 본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은유하고 있다.

이 책에는 프랑스 최고의 만화가 피비우스가 한국어판을 위해 그린 40점의 컬러 삽화가 실려 있다. (열림원출판·값8,800원)

公演

■ 셀라 여성 티악 그룹

—8월 26일 예술의 전당

2002년 11월 여성인으로 결성된 티악 그룹.

도혜경(90년 音大卒·숙명여대 강사)·신수정(98년 音大卒)등본, 이외에도 강사인 배유진씨 등이 뛰어난 연주 실력과 클래식, 스탠다드, 재즈, 라틴 음악 등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청중과 가까워지려고 시도하고 있다.

「Shelah」는 히브리어로서 「호흡」, 「정지」, 「여백」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공연을 통해 여성이 갖고 있는 특유한 해석과 건반 타악기의 테크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이 사

◇人文大學

▲홍문수

◇社會科學大學

▲이영두 ▲이효웅 ▲정두연
▲홍석규

◇自然科學大學

▲양병룡 ▲이정복

◇工科學大學

▲강인규 ▲강장호 ▲강오익
▲고병삼 ▲고재웅 ▲공병재
▲곽수대 ▲구자영 ▲권수용
▲김정희 ▲김기동 ▲김덕영
▲김동진 ▲김동호 ▲김민석
▲김병현 ▲김석기 ▲김석우
▲김성년 ▲김성중 ▲김수광
▲김영호 ▲김영문 ▲김영희
▲김영국 ▲김영우 ▲김정규
▲김정국 ▲김정수 ▲김정철
▲김종국 ▲김종욱 ▲김종훈
▲김정수 ▲김창호 ▲김현주
▲권희철 ▲박동철 ▲박성규
▲박석영 ▲박순자 ▲박진구
▲박용택 ▲박우범 ▲박준철
▲박정선 ▲박태원 ▲박형배
▲사진국 ▲서석문 ▲서영화
▲설원길 ▲서낙정 ▲서용모
▲신승호 ▲신영열 ▲안수길
▲양재현 ▲양홍준 ▲여인희
▲오세철 ▲오택길 ▲원종환
▲원복선 ▲박동철 ▲유규준
▲유근택 ▲유기영 ▲유석열
▲윤석희 ▲윤정호 ▲윤복문
▲이기호 ▲이원철 ▲이바일
▲이부남 ▲이상훈 ▲이상호
▲이성현 ▲이승준 ▲이영희
▲이재건 ▲이준희 ▲이종용
▲이관범 ▲임무현 ▲임종규
▲전상배 ▲전영우 ▲조규홍
▲조영호 ▲조선희 ▲조재문
▲조광현 ▲조원재 ▲조형재
▲진국범 ▲진대재 ▲전주환
▲최동훈 ▲최상호 ▲최승주
▲최정민 ▲최정길 ▲최정욱
▲최정민 ▲하상일 ▲한철중
▲함정호 ▲한희현 ▲홍민석
▲황대국

◇農業生命科學大學

▲권대희 ▲김광호 ▲김영섭
▲김영진 ▲김영우 ▲김택구
▲나현진 ▲방형구 ▲서병룡
▲손두식 ▲심재훈 ▲오세춘
▲유영준 ▲유영두 ▲이무근
▲이영환 ▲이정식 ▲이재근
▲장우정 ▲정민섭 ▲조병환
▲전지민 ▲최원규 ▲함종환
▲허보희

◇文理科學大學

▲구대희 ▲권병두 ▲김재중
▲김정현 ▲김덕중 ▲김상근
▲김승국 ▲김용국 ▲김희준
▲김희준 ▲남광성 ▲남시욱
▲류복록 ▲류지웅 ▲박병민
▲박상대 ▲박준호 ▲서상섭
▲신창호 ▲양규호 ▲오병남
▲유보민 ▲유세홍 ▲이재계
▲이두용 ▲이성철 ▲이민재

회비납부 출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3년 4월 14일~2003년 4월 28일) (一般: 2003년 4월 15일~2003년 4월 28일)

◇商科大學

▲이정남 ▲이주용 ▲이주선
▲이해남 ▲이청구 ▲인태오
▲임정민 ▲장병우 ▲장정환
▲정소성 ▲정준호 ▲정학성
▲조 은 ▲최 환 ▲최덕인
▲최병민 ▲최승부 ▲한갑수
▲한태길

◇美術大學

▲김은영 ▲김 태 ▲김원중
▲김대욱 ▲김현선 ▲김희주
▲박대순 ▲서동희 ▲이종삼
▲조승환

◇法科大學

▲김대선 ▲김진원 ▲김현안
▲고원석 ▲공영규 ▲곽노준
▲곽정철 ▲구경서 ▲권영호
▲김정철 ▲김관택 ▲김길영
▲김택우 ▲김도연 ▲김동진
▲김종국 ▲김종환 ▲김선중
▲김사승 ▲김경기 ▲김영일
▲김용철 ▲김민태 ▲김외재
▲김익하 ▲김인호 ▲김인환
▲김재호 ▲김준섭 ▲김진호
▲김정국 ▲김희원 ▲김현선
▲김현선 ▲김현선 ▲김홍현
▲김희국 ▲평호근 ▲민수광
▲민수광 ▲민정기 ▲박국수
▲박민환 ▲박영수 ▲박민수
▲박종현 ▲박철근 ▲박태원
▲박태중 ▲박우성 ▲방 현
▲배용범 ▲서광하 ▲서도양
▲서승환 ▲서희석 ▲신우현
▲신승환 ▲손재희 ▲송병재
▲신기남 ▲신동환 ▲신정철
▲신영우 ▲신대식 ▲여동영
▲여상규 ▲오현환 ▲우성만
▲우희현 ▲유영진 ▲유재중
▲유희열 ▲윤동원 ▲윤보옥
▲윤재승 ▲이 돈 ▲이 흥
▲이규호 ▲이규진 ▲이근식
▲이대국 ▲이병희 ▲이무용
▲이문재 ▲이병석 ▲이상용
▲이성보 ▲이세정 ▲이수성
▲이영대 ▲이영옥 ▲이인성
▲이재중 ▲이정락 ▲이종용
▲이주성 ▲이주영 ▲이충환
▲이해봉 ▲이형하 ▲김규문
▲장병규 ▲장병우 ▲전도환
▲정문호 ▲정병석 ▲정성호
▲정해운 ▲정취우 ▲조대영
▲조동원 ▲조배숙 ▲조성재
▲조용규 ▲조정식 ▲주진하
▲최기성 ▲최상엽 ▲최영관
▲추영일 ▲한부환 ▲한운섭
▲한진우 ▲허 명 ▲허용구
▲현정길 ▲현명관 ▲현남남
▲황기정 ▲황길수 ▲황병기
▲황보석

◇生活科學大學

▲유영주

◇獸醫科大學

▲김준무 ▲이재진 ▲한기영

◇藥學大學

▲김석진 ▲고광호 ▲공영주
▲김진중 ▲김원보 ▲김윤중
▲김종호 ▲문정운 ▲박사우
▲박종길 ▲박석수 ▲신희범
▲우재성 ▲이가복 ▲이재관
▲이광식 ▲이규호 ▲이기연
▲이상은 ▲이성태 ▲조배규
▲지현석 ▲최정예 ▲최정선
▲한규홍 ▲허 박

◇音樂大學

▲백원정 ▲유봉우 ▲유영범
▲이성만 ▲이재숙 ▲전신주
▲김대열 ▲김대성 ▲김형운
▲고재환 ▲김병수 ▲김광수
▲김기선 ▲김병현 ▲김상준
▲김정민 ▲김영관 ▲김영준
▲김지동 ▲김정환 ▲김종우
▲김진철 ▲김정현 ▲정준호
▲문국성 ▲정수부 ▲문준호
▲민병철 ▲박소성 ▲박용현
▲박성호 ▲박민기 ▲서우현

◇師範大學

▲권상원 ▲김우석 ▲김준조
▲김석규 ▲김영관 ▲김준기
▲김지국 ▲김기동 ▲김정현
▲박국석 ▲박기석 ▲박정환
▲백승관 ▲이병희 ▲이성준
▲이원국 ▲정종식 ▲정원호
▲정배규

▲선조영 ▲성기호 ▲손광현
▲손준호 ▲신경우 ▲신명희
▲신준호 ▲심영수 ▲심익섭
▲안재환 ▲우종민 ▲위정민
▲유대연 ▲윤정현 ▲윤해근
▲은희철 ▲이갑순 ▲이대규
▲이동훈 ▲이상문 ▲이상용
▲이승훈 ▲이원희 ▲이종태
▲임한영 ▲장성근 ▲장윤석
▲조하영 ▲정진택 ▲정대관
▲조성수 ▲지삼범 ▲최동수
▲최병규 ▲최세준 ▲최정연
▲하국익 ▲하재동 ▲현동수
▲함의근 ▲홍영수 ▲홍정용

◇商科大學

▲강성현 ▲권오영 ▲김복호
▲김상제 ▲김성룡 ▲김우환
▲김종우 ▲김종우 ▲김종중
▲김지호 ▲김진현 ▲박인자
▲박인준 ▲박기석 ▲백성기
▲소화진 ▲안정영 ▲안효일
▲양규식 ▲오기문 ▲유영석
▲유영세 ▲유재석 ▲유치환
▲유대영 ▲유영현 ▲이기복
▲이병환 ▲이한우 ▲임동복
▲임문식 ▲임성근 ▲임성현
▲장상현 ▲장성영 ▲조병현
▲최정범 ▲최정석 ▲한규열
▲한성준 ▲한세현 ▲홍예표
▲홍의강

◇大學院

▲백 철

◇經營大學院

▲김민수 ▲김윤택 ▲김홍식
▲박원범 ▲신갑수 ▲이병재
▲장영민

◇敎育大學院

▲최홍규

◇保健大學院

▲김석성 ▲윤용길 ▲이광식
▲이성동 ▲전금자

◇司法大學院

▲김석성 ▲김창식 ▲석용진
▲김진수 ▲이재준

◇行政大學院

▲김영희 ▲박병재 ▲배문환
▲백상현 ▲양석호 ▲연기호
▲유상철 ▲이재계 ▲정여환
▲조상호 ▲조병대 ▲최규하
▲최종태 ▲황길준

◇環境大學院

▲강은수

◇최고경영자과정

▲권기술 ▲박상규

◇국가정책과정

▲김정희 ▲김정숙 ▲박병환
▲김정희 ▲김정숙 ▲박병환
▲김정희 ▲김정숙 ▲박병환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박상동

일 반

◇人文大學

▲강인자 ▲공소영 ▲권호중
▲김연식 ▲김영준 ▲문선호
▲변원일 ▲서대영 ▲송력준
▲안병용 ▲우순조 ▲유종민
▲이 건 ▲이강복 ▲이기현
▲이범규 ▲이성우 ▲이유경
▲이일환 ▲이정욱 ▲이종태
▲이정준 ▲이종현 ▲이창화
▲장대환 ▲장윤선 ▲정인환
▲조종도 ▲조영현 ▲최기식
▲최현영 ▲최지내 ▲추희열
▲평철호 ▲홍기선 ▲홍영호

◇社會科學大學

▲김정현 ▲권 일 ▲권용신
▲권영진 ▲김갑철 ▲김종중
▲김관호 ▲김서유 ▲김성원
▲김연진 ▲김영민 ▲김익성
▲김준국 ▲김준현 ▲김지민
▲김진호 ▲김태기 ▲김현희
▲김홍석 ▲나종호 ▲류주호
▲민선식 ▲박규현 ▲박인환
▲박재영 ▲박재준 ▲배홍하
▲백승주 ▲사공진 ▲석원관
▲신경래 ▲설병환 ▲소경수
▲송기근 ▲송동섭 ▲신정섭
▲신정환 ▲신택호 ▲임계현
▲유성복 ▲유승희 ▲유재철
▲윤신기 ▲윤현철 ▲이원환
▲이수영 ▲이영식 ▲이우석
▲이종환 ▲이재현 ▲이재하
▲이종환 ▲이정현 ▲이정환
▲정성인 ▲조동환 ▲조정환
▲조원진 ▲최수영 ▲최원석
▲최이준 ▲최정배 ▲최정환
▲최정환 ▲하경호 ▲현부성
▲황철준

◇自然科學大學

▲강민준 ▲김남수 ▲김도현
▲김성준 ▲김정현 ▲김진영
▲김진미 ▲김정호 ▲박용문
▲박정현 ▲박준환 ▲손병기
▲신기준 ▲안정현 ▲임성환
▲오병두 ▲윤대석 ▲이병근
▲이승환 ▲이신두 ▲이영환
▲이현식 ▲장승환 ▲정영재
▲전덕원 ▲정선희 ▲정원환
▲조관호 ▲조희재 ▲최준수
▲현정환 ▲홍준환 ▲홍준환

◇看護大學

▲김정희 ▲박병재 ▲배문환
▲백상현 ▲양석호 ▲연기호
▲유상철 ▲이재계 ▲정여환
▲조상호 ▲조병대 ▲최규하
▲최종태 ▲황길준

◇經營大學

▲김 선 ▲김정복 ▲김정진
▲김정현 ▲김기문 ▲김봉우
▲김성근 ▲김진환 ▲김정환
▲김윤선 ▲김종현 ▲김관호
▲김종현 ▲김종현 ▲박정환
▲박정환 ▲박대환 ▲배지현
▲서진희 ▲석도정 ▲성학현
▲신동민 ▲신정호 ▲여영준
▲유성철 ▲윤 영 ▲이강호
▲이병길 ▲이유재 ▲이준환

▲유준형(66) ▲유철희(56) ▲유해돈(66)
▲유호민(67) ▲윤익수(57) ▲이 름(66)
▲이건리(65) ▲이건택(65) ▲이경우(66)

▲이산생(6) ▲이학삼(5) ▲이만호(5)
▲이삼복(6) ▲이삼복(5) ▲이삼희(5)

이유현숙	이유근기	이장준호
이재옥	이정석	이종복
이정희	이종환	이진태
이진희	이현상	이현영
이현옥	이희곤	임병복
임하연	장병만	장성희
장병권	장승영	장정숙
장지근	조두현	조성서
조승환	조우현	조재건
조종현	조주운	조지민
조정성	차상필	차원태
채대승	최병무	최병남
최석영	최진호	최정수
최문식	최희숙	최희준
한 진	한덕수	허승태
현규진	현홍주	홍순범
홍규권	홍선익	홍창익
홍형모		
◇師範大學		
김경돈	김병철	김장희
김하진	고태희	곽기원
구병현	구봉수	구안현
구인관	구자혁	구현숙
권오영	권홍철	김규자
김기원	김길준	김남승
김동윤	김병훈	김성원
김상현	김세철	김성태
김진애	김영석	김영준
김영자	김용남	김우택
김익수	김인중	김정길
김우성	김정호	김종환
김종만	김준현	김창열
김철환	김현복	김희원
최효환	최희환	최희정
남규옥	남희희	노무석
문장현	박용희	박인국
박인자	박수준	박재광
박정원	박종일	박주원
박희경	박희관	박희정
반진호	방재애	변범식
변지연	서수현	성무영
성 현	송남승	송동수
심병아	신승훈	신영희
신용우	신인숙	신정경
신한우	신태우	신태영
인광희	안소희	양동희
오지현	오정현	오필준
유강성	유길준	유영목
유오영	유정규	육동원
윤동희	윤재광	윤종호
윤홍희	이종태	이광희
이광성	이대규	이동현
이수현	이상준	이석수
이승현	이만기	이영주
이영호	이원교	이민규
이인자	이종택	이종희
이종현	이종태	이희정
이찬근	이창규	이함국
이재근	이태근	이현태
이창기	이후영	임문선
장성철	장선익	장재현
전진익	전오희	전종호
전국익	전귀자	전대영
정두영	정무용	정영호
정우성	정의성	정현식
채유진	조경희	조성민
조용현	지홍성	진태현
조기연	제미경	최희준
최영희	최기남	최영민

업⑮ ▲송문

▲박인규⑩ ▲박창업⑬ ▲송문선⑫
 ▲이상호② ▲이용운⑪ ▲이재구⑨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광두③ ▲김만수⑤ ▲김성수②
 ▲김원길① ▲김정모④ ▲김종호④

▲바탕화면⑥ ▲바

◆순원구③ ◆오묘후⑦ ◆오묘봉⑥
 ◆이가재④ ◆이미정④ ◆이밖순③
 ◆조원재④ ◆이연진④ ◆이충준③
 ◆창성⑦ ◆임정식⑤ ◆진우대②
 ◆정해문⑤ ◆정해수③ ◆조진배③
 ◆조반복⑦ ◆조광연②

◇가정김호수승과점

◆박정현④ ◆시희영④

◇공기업고금정영자과점

◆강대거④ ◆강병오① ◆공철두③
 ◆김시해④ ◆김미경④ ◆김복순③
 ◆김사춘③ ◆김성경⑥ ◆김정환⑤
 ◆김원진⑦ ◆박복선⑥ ◆박사훈①
 ◆박라선④ ◆박민식③ ◆박현용③
 ◆박복영④ ◆백희원④ ◆소복호③
 ◆안성원① ◆안지홍④ ◆오승환①

▲이삼칠② ▲이

▶이명4 ▶이충현9 ▶임광수1
 ▶임무국4 ▶장진현4 ▶전서구7
 ▶조수구7 ▶조순익4 ▶조지영7
 ▶최영5 ▶최석4 ▶홍기만3
 ▶황수경8

◆보건의료정책핵심고려대상자과점

▶과광희6 ▶권기진8 ▶김용2
 ▶김정현6 ▶김진희5 ▶김정현7
 ▶김동환8 ▶김준하5 ▶김유희1
 ▶김일용6 ▶김진하5 ▶박유4
 ▶박진아8 ▶박성기4 ▶박성자4
 ▶서원영7 ▶서준석5 ▶서지용4
 ▶심현재7 ▶신상원7 ▶오병국8
 ▶안호준6 ▶이은진5 ▶윤석복6
 ▶정영태4 ▶이광순5 ▶이남남5
 ▶이성민5 ▶이재광8 ▶이찬환4
 ▶이태민1 ▶정찬기8 ▶전병택1
 ▶전영숙5 ▶전혜숙3 ▶정재규2
 ▶조병하4 ▶최병덕8 ▶홍영은4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점

▶고석진3 ▶김광훈1 ▶김문오8
 ▶김진규9 ▶노순석8 ▶홍성태8
 ▶이병재7 ▶박기경1 ▶박종현5

▲선시문⑩ ▲선지

▲이성일② ▲이영호⑥ ▲이우총⑥
 ▲이장화① ▲이종명② ▲임삼구⑬
 ▲임종수⑤ ▲정장화⑤ ▲조병호⑨
 ▲조영현③ ▲최유선⑪ ▲허현욱⑬
 ◇패션산업최고관리자과정
 ▲고미희① ▲김도삼② ▲김명호②

▲기적미② ▲기적

▶백송화① ▶유광종② ▶은하선①
▶이동락① ▶이진순① ▶전문환①
▶최윤진① ▶한승철①

(지면관계로 국가정책과정,
해양정책최고과정 회비 납부하
신 부문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월 계 : 89,120,130원
총 계 : 217,879,274원
+13,000 \$

동문의 소리

지역주민의 건강 위한 소박한 꿈

李明淑(74년 看護大卒)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지원국장



일차모건의료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핵심과제로 인식돼 왔으나 주민참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예는 매우 드물다. 여기에서 마을건강원의 기금미련환돌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기전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82년도에서 90년도까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독일기술협력공사(GTZ)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한·독협력 일차보건의료모형개발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여주군 접동면 마을건강원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참가를시업을 전개한 적이

있다. 마을건강원은 각 부락단 위로 부녀자 중에서 선발돼 일차교육을 이수한 후 주민과 일차보건교육기관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28명의 마을건강원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필요했다.

마을건강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은 연간 1백만원 정도였고, 이 비용을 은행이자로 충당하려면 당시 은행이율로 산정했을 때 1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했다. 마을

건강원들과 기금마련방안으로 농촌지역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참기를 판매사업을 하기로 했다. 마을건강원들은 함께 한 되씨를 각출했고, 고려대 의료원에 참기름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모았다.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많은 지지와 지원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건강원들은 자신들이 건강관리봉사자이지만 대해 자긍심이 높아졌다. 사업이 종료했을 때 기금은 복복약인 1천만원을 넘었다.

사업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마을건강원들은 일차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마을독거노인 식사접대, 주민 혈액검사, 응급처치, 장애인동식물방출분사 등 자율적인 주민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일차보건의료사업에서 지역사회 참여기전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번씩 이 지역을 방문해 마을
건강원들이 요청하는 보건교육
을 하고 그동안의 활동내용도

놓는다. 마을건강원과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은 언제나 같다.
“요, 선생님은 언제나 그대로
세요!” “어머, 마을건강원
도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첫
을 만난지 20년이 지났는데 왜
그대요이겠는가? 그러나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모습으로
는 깨지는 것은 우리가 젊은 날 지
역사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졌던 소박한 꿈을 아직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
다.

「理判」 교수와 「事判」 교수의 조화

姜聖男(82년 行大院卒)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못 난 전 부산에서 개최됐던
하계예술대회를 마치고 교수 일
행이 금강산 범어사를 방문한 학
이 있다. 그 때가 마침 여름 4월
15일부터 석 달 동안 스님들이
한 방에 모여 수행하는 「夏安居」
를 끝낼 직후 모두 포교를 나간
뒤라 신사가 황허하게 느껴졌다.
우리 교수진 일행이 방문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취한 터라 매우
젊은 스님이 입에서부터 우리
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그리고 절 안 한 채의 방에서
교수부장을 맡고 계시는 다른 스

남 한 분이 우리 일행을 접견하셨다. 그는 우리 일행에게 범어사에 얹힌 이야기며, 자신의 수행경험이며, 출가초기에 겪었던 에피소드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理判事例」에 관한 것이다.

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스님
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하나는 이관 스님이고 다
른 하나는 사관 스님이다. 이관
스님은 도를 닦는 데 전심 전력
하고, 사관 스님은 절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데 남다른 능력을 보이는 스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 스님과 사관 스님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는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대학 사회에서도 이관과 사관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교수들 가운데에도 연구에만 정진하는 이관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교내의 보직을 도맡으면서 학교 살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관

교수들이 없지 않다. 이관 교수는 사관 교수들 향해 「연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무슨 교수냐고」 알보는 데 반해, 사관 교수는 이관 교수를 보고 「학교라는 거대 조직 속의 인간으로서 조직의 생리도 모르면서 어찌 조직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한다.

문제는 이관 교수들이 연구 그 자체에만 몰두하여 연구결과 의 유용성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이고, 사관 교수들은 교수로서의 본연의 역할인 연구활동

에 소홀히 함으로써 조직관리자
로 전락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런 교수의 장점과 사관 교수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교수들이 캠퍼스에서 수행할 고행업인지 모른다. 이러한 고행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관 교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관 교수의 길을 고집할 것인가로 치달으면 결국 이관사관이 되고 말 것이다.

정치 불량거래가 사라지는 사회

朴鍾吉(6기 SGS)시인·소설가



동화! 순수한 사람의 발을 쓴
늑대가 투명한 유리상자 집안을
노리고, 아무 것도 모르는 돼지
삼형제, 세상 흐름의 빠름을 바
람 때문에 인식한 순진한 그
들, 집안 밋을 한껏 부추겨 놀
다 감동의 위험이 불어오고 있
는 걸 모른다.

누대는 형상국은 이빨을 드러
 내지 않고 바람을 따라 움직이
 고, 강풍으로 뒤흔들려진 집
 속에는 울 짙어 형제를 여차한
 면 골짜기엔 계산을 짓고 정경하
 고, 순간 강풍으로 흘러넘치
 는 집에서 빠져나가 부라부라
 도망치다 집터목을 뻗은 전설,
 그런 위험을 뚫은 눈으로 감지
 한 파과 포착자는 누대의 속살

을 먼저 알고서 선한 목숨에 쓰여진 위대한 굴레를 걷어내려고 검은 속셈으로 미끼를 제공한 늑대를 엄벌한 동서양의 고전을 예로 들고나섰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픈 현실적 정치풍자가 아닐까. 대통령은 부실한 정치자금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선관들만 계속 피해를 본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빨 강한 늑대가 언제라도 감통을 동원하여 부실한 집을 부수고 들어선다면 너무나 이치할 것은 틀림없다.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 현실 정치, 국회의
원도 사람이니 마찬가지로 사람
의 발을 쓴 늑대들의 로비를 열

두에 두면서도 아차 하면 당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하여 뇌물권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 정치를 생각해 볼 때 교과서와 같이 아니고, 한여름에 낮에 밀폐된 장소에서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을 틀어놓고 땀을 흘리며, 추운 날 찬양에서 허터를 틀어놓고 질척한 사건들을 파헤치며 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자명한 원리처럼, 과연 비비한 정치자금 때문에 Toss 나온 불사의 새 사건처럼 일반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경제사범의 정치 후임 고질로 가장한 뇌물과 정적인 유 고질단 시녀나 내 거절만

드는 뻔뻔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인
가

이를 우려하는 현명한 국민들
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부령
초계 정립된 정치자금법의 제정
하는 개선이 없는 한 함상이 의
집단에 소속된 독재들의 바람을
차단하지 못하고 언제라도 정치
권의 뇌물수수 파장은 커질 수
있어 단행되는 일찍이 것이다.
그리고 반박되어 발생할 수 있
지만 어쨌든 때문에 붙어있는
바람을 아물 수 없다는 식으로
말치면 오히려 독재의 毒數를
무둔하는 꼴이 될 것이고, 오히
려 선명한 정치인을 찾는 구대
의역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가장스럽다.

진정 국민의 행복과 평안함을
배려하기 위해서 선량을 보호하
는 차원으로 폐정제를 서둘러야
하겠다. 의원 스스로 투병할 양
심에 갇혀 정치 불참객제가 사
라지도록 드러나지 않는 늑대들
의 마음을 미리 차단하면 불순
에 빠져들 위원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은 지혜로운 배당
한민족 후손으로 아름답게 물려
줄 나라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
면 늑대의 입수에서 해방될 것
이다.